

## 두 가지 해원사상 비교

### - 대순사상과 도교문헌을 중심으로 비교고찰 -

주 잔 엔(朱展炎)\*

사천대학 도교와 종교문화연구소 · 강사

- I. 원결(冤結) 형성의 원인
- II. 원결의 유형과 해원의 방법
- III. 해원의 주체와 범위

- IV.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사상
- V. 결론

대순진리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흥종교단체로 핵심교리로는 “음양 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종지(宗旨)가 있고, 성(誠), 경(敬), 신(信) 삼법언을 수도의 요체로 삼고 있으며, 안심(安心), 안신(安身)의 이율령(二律令)을 수행의 훈전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며, 인간개조(人間改造)를 통하여, 정신개벽(精神開闢), 포덕천하(布德天下), 구제창생(救濟蒼生),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이루어, 지상천국(地上天國)을 건설하고자 하는 종교적 목표를 갖고 있다.”<sup>1)</sup> 대순진리회의 교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순진리회는 지상천국건설을 목표로 하는 입세종교(入世宗教)이며, 종지에는 합(合), 조

\* 사천대학 도교와 종교문화연구소 강사. 철학박사.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E-mail: 123467520@qq.com.

1)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 『대순진리회요람』, 간체본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p.11. 이하의 인용은 모두 본 『대순진리회요람』에 근거한다.

(調), 해(解), 통(通)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를 볼 때 대순진리회는 신과 인간의 모순을 해소하고, 인간세상의 분쟁을 해결하며, 심신수양을 중요시하는 현대적인 종교단체이다. ‘신인조화’와 ‘해원상생’은 종지의 중간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음양합덕’, ‘도통진경’을 실현하는 관건적 요소이다. 대순진리회에서 ‘해원상생’을 교리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특별한 점이다.

도교는 창립 초기부터 ‘해원’문제를 언급하였다. 초기 도교경전인 『태평경(太平經)』에서는 ‘해원결(解冤結)’<sup>2)</sup> 사상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정통도장(正統道藏)』과 『만력속도장(萬曆續道藏)』에는 ‘해원’을 주제로 한 『태상노군해원발도묘경(太上道君說解冤拔度妙經)』(『태상설통진고황해원경(太上說通眞高皇解冤經)』 다른 제목으로 된 두 권의 같은 경전임), 『태상삼생해원묘경(太上三生解冤妙經)』, 『원시천존설동악화신제생도사발죄해원보명현범고주묘경(元始天尊說東嶽化身濟生度死拔罪解冤保命玄範詰呪妙經)』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편찬된 도교과의(道教科儀) 문헌들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원한을 해소하여 태평한 세상을 이루고, 원혼을 위로하는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원(冤)’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다. “원이란 굴곡이고, 굴속에 갇혀있는 토끼이다. 토끼가 막힌 곳에 갇혀 움직일 수 없으므로 억울한 것이다.”<sup>3)</sup>라 하였다. 즉, 원이란 억울함을 말하는 것으로, 억울함을 당했으나 해소할 곳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기에 마음속에 원한이 생기고 또한 응어리가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유혼(幽魂)사이에는 적대관계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영보옥감(靈寶玉鑿)』 제1권에서는 “임신 중 사망하거나, 해산 직후 사망하거나, 산모가 죽고 자식이 살거나, 산모가 살고 자식이 죽는

2) 대순종교문화연구소의 차선근 연구위원은 『<태평경>의 해원결과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사상 비교』라는 논문에서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김옥 편, 『道與東方文化: 東亞道文化與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12), pp.391-418.

3) [漢]許慎撰, [清]段玉裁注, 『說文解字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第2版), p.472.

… 모든 것들은 전생에 맺은 악연으로 인해 원혼이 태중에 들어와 복수하는 것으로 … 몸을 보존하고 오래 살려고 했으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원통함이 해소되지 못한 것이다.”<sup>4)</sup>라고 하였다.

도교경전에서 말하는 원결(冤結)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범한 과오나 범죄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적대관계를 말한다. 이는 결국 음계(陰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음계의 유혼이 양세의 인간에게 복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인간과 귀신사이에 매듭을 맺게 된다. ‘해원석결(解冤釋結)’이라함은 재조과의(齋醮科儀)와 부록주결(符籙呪訣) 등을 통하여 음양계의 모순을 해소하고, 유혼을 달래어 승화시킴으로써 양세(陽世)의 태평을 도모하는 것이다. 송대(宋代) 왕계진(王契眞)이 쓴 『상청영보대법(上清靈寶大法)』 권43에서 볼 수 있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간은 처세를 할 때 조금한 마음에 사물을 해치거나, 목숨을 해하고, 빚을 지는 등 여러 가지 원한을 만들게 되는데, 그 영향이 음계까지 미치게 되어 해소하기 어려워진다. 하늘의 은혜를 받고, 내려주신 법으로 수행하고자 하나, 이미 원한이 사무쳐 있기에, 우연찮게 다시 만나 난(亂)을 일으킬까 걱정된다. 그러므로 재법(齋法)을 행할 때 부문(簿文)을 사용하고, 그것을 해석하면, 마음이 도(道)를 향하게 되고, 원 맺힘도 풀리게 되어, 모두 같이 낙토(樂土)로 향할 수 있게 된다.<sup>5)</sup>

‘해원석결’이라는 단어는 도교경전에서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보령교제도금서(靈寶領教濟度金書)』 제3권 “해결막성위(解結幕聖位)”에 는 관련된 일로 인해 모셔온 해결의 신(神)들이 등장하는데, “영보해원석결영관(靈寶解冤釋結靈官) … 구천해원결대신(九天解冤釋結大神) 및 영보여의(靈寶如意), 만사(萬司), 해원(解冤), 석결(釋結)의 사대신(四大神)”<sup>6)</sup>

4) 『道藏』(北京: 文物出版社, 上海: 上海書店,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88), 第10册, p.144, “有懷胎而死, 有既產而亡, 或母死而子存, 或母存而子死 … 是皆其前生仇讎, 托胎報復 … 彼安身立命之念既孤, 則負屈銜冤之心莫釋.” 이하 『道藏』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5) 『道藏』, 第31册, pp.93-94, “凡人處世, 多因躁心害物, 或欠命負財, 積諸冤結, 以致陰訟牽連, 無由托化. 既承天恩開度, 得領薦修, 但其間怨惡切齒, 因避近恐生紊亂. 當依齋法用符文, 隨事與之解釋, 使回心向道, 解結和冤, 庶可同登樂土矣.”

이 이에 속한다. 도교에서는 ‘해원석결’이라는 표현 외에도 ‘해원결(解冤結)’, ‘석해원건(釋解冤愆)’, ‘해원석건(解冤釋愆)’, ‘해원수(解冤讎)’, ‘해원발죄(解冤拔罪)’, ‘해원석대(解冤釋對)’, ‘해원제결(解冤除結)’, ‘해원석박(解冤釋縛)’, ‘해결화원(解結和冤)’, ‘해원채(解冤債)’, ‘해원(解冤)’, ‘해원증(解冤憎)’, ‘해원구(解冤仇)’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 이처럼 수많은 표현법이 있다는 것은 도교에서 해원사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래에서는 원(冤)이 형성된 원인과 원의 종류 및 해원의 방법, 범위 및 원의 주체(主體)에 대해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I. 원결(冤結) 형성의 원인

『태평경』은 초기의 도교경전으로 그 교리적 목적은 ‘태평을 이루고 자(致太平)’하는 데 있다. 인간세상이 태평스럽지 않고,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원한이 생기는 것은, 원기(元氣)를 구성하는 우주가 화합하지 못하고 또한 서로 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태평경』은 기(氣)의 조화와 상통(相通)을 강하게 주장한다.

기란 천기(天氣)가 즐겁게 하생(下生)하고 지기(地氣)가 순조로이 상양(上養)한 것이다. 기는 천지에 두루 미치는데, 음양이 그것을 얻어, 조화를 이룬 후, 다시 중화(中和)의 기(氣)와 합쳐져, 만물을 길러낸다. 이렇듯 삼기(三氣)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통하면 만물이 해를 입지 않는다.<sup>7)</sup>

기의 불화와 불통(不通)이 생기는 원인은 인재(人災)에서 비롯한다.

6) 같은 책, 第7册, p.48.

7) 王明編, 『太平經合校』(北京: 中華書局, 1960), p.148, “氣者, 乃言天氣悅喜下生, 地氣順喜上養; 氣之法行于天下地上, 陰陽相得, 交而爲和, 與中和氣三合, 共養凡物, 三氣相愛相通, 無復有害者.” 이하 『태평경합교』로 약칭하기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경』은 인간세상의 최고권위자인 군주가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sup>8)</sup>

군주는 하늘(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은덕이 천하에 펼쳐지지 않으면, 만물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인간 역시 명을 이을 수 없다. 인군의 마음이 창달(暢達)하지 않으면, 천심(天心)은 아래와 통하지 않기에, 처자(妻子)는 부군의 명을 얻지 못하여 집안이 망하게 된다. 신기(臣氣)도 도달하지 못하고, 지기(地氣)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 민기(民氣)가 상달(上達)하지 못하는 데 화기(和氣)가 어찌 흥(興)할 수 있으랴? 중화(中和)는 마땅히 제왕처럼 통치를 하여, 만물을 조절함으로써 모든 것이 적절하게 다스려지게 해야 한다. 현재 삼기(三氣)가 서로 상통(相通)하지 않으니, 어떻게 태평을 이룰 수 있겠는가?<sup>9)</sup>

『태평경』의 해석법에서 비롯해 볼 때, 그 이론적 근거는 한대(漢代)에서 유행했던 ‘원기론(元氣論)’, ‘천인상부설(天人相副說)’, ‘재이론(災異論)’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당시 형성된 이론에서는 천, 지, 인의 삼화상통(三和相通)을 강조하였다. 천지가 서로 조화롭게 상통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천인상부’이다. 이 이론은 천과 인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상에서 출발하여 ‘몸과 국가도 하나’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의 수양(修養) 정도는 피지배계급과의 상통(相通)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군주가 나라를 다스릴 때 왕도를 실행한다면 수많은 ‘승부(承負)’의 화(禍)를 줄일 수 있으며 아울러 세상의 원결(冤結) 역시 피할 수 있다.

『태평경』은 우주론과 인군론(人君論)에 중점을 두고 세상에 원한이 생기는 원인을 밝혔으며, 정치신학적 각도에서 ‘태평성세’를 건설하여 인간세상의 원한을 소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의 도교경전들은 종교신학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숙죄(宿罪)’의 각도에서 원결의 형

8) 차선근, 앞의 글, pp.395-398.

9) 『태평경합교』, p.16.

성원인을 설명하였다. 『태극진인부령보재계위의제경요결(太極眞人數靈寶齋戒威儀諸經要訣)』에 “저희들은 마속(魔俗)에서 태어나, 말세에 빠져 살면서, 부귀영화만 탐내고, 인연을 숙명으로 알고 살다가, 갑작스러운 계시를 받아 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즐거움을 버리고 신선의 도를 닦으려 하나, 그동안 쌓인 죄가 많아 그 속박을 풀 수가 없습니다.”<sup>10)</sup>라고 나와 있다. 이어 경전은 또 인간 세상에 원한이 맺힌 원인과 신인(神人)사이에 원한이 맺힌 원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저희들은 크고 작은 가족에서 왔습니다. 전생과 금생(今生)에 지은 깊고 큰 죄를 사면 받고자 합니다. 부군을 죽인 사람도 있고, 부모에 효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스승과 친우를 배반한 사람도 있고, 진실을 숨기고 허위로 산 사람도 있고,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한 사람도 있고, 자기 나라를 공격한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사람도 있고, 중생을 살해한 사람도 있고… 현인도사(賢人道士)를 살해한 사람도 있고, 무도(無道)한 군주로 산 사람도 있고, 불충(不忠)한 신하로 산 사람도 있고, 윗사람을 속이고 아랫사람을 천대한 사람도 있고, 백성을 학대한 사람도 있고, 공명(功名)만 추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친족끼리 서로 살해한 사람도 있고, 정사(靖舍)와 영단(靈壇)을 파괴한 사람도 있고, 경서를 도둑질한 사람도 있고… 도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풍우(風雨) 및 천지일월성신, 제왕군주, 사부도사(師父道士) 등 사대(四大)를 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을 욕하거나 무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언행이 불일치한 사람도 있고, 자신의 모습을 속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지었으니, 다 인식하지도 못할뿐더러 쌓이고 또 맺어져 더 이상 풀 수가 없고, 원한이 끊이지 않습니다.<sup>11)</sup>

10) 『道藏』, 第9冊, p.867, “臣等生長魔俗, 沉淪季葉, 翫樂榮華, 宿命因緣, 忽見啟拔, 得奉大道, 不以下愚好樂至眞升仙之道, 而宿罪深積, 結縛不解.”

11) 같은 책, p.869, “…臣等身及家門大小, 願得赦除前世今生生死重罪惡過, 或弑君父, 或不孝二親, 或背師欺友, 或廢眞就僞, 或爲劫賊, 攻伐家國, 或伐他國, 或殺害衆生…殺賢人道士, 或爲君無道, 或爲臣不忠, 罔上威下, 酷虐百姓, 已取榮名, 或六親相殘, 或敗靖舍靈壇, 或竊經書…或不崇有道…或呵風罵雨, 及天地日月星辰, 帝王國主, 師父道士, 輕慢四大, 或罵鬼神, 呼謂無知, 或口是心非, 自欺開謬, 諸如此等, 莫大之罪, 不可億識, 積世結固, 纏綿不解, 冤對不已.”

개개인이 전생이나 금생에 범한 과오는 해결하기 어려운 원한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그리하여 인간과 인간사이, 인간과 천지사이, 인간과 신 사이에 각종 원결이 발생하게 된다.

지옥의 원한에 대해서도 도교경전에서는 ‘숙죄론(宿罪論)’의 시각에서 해석하였다. 『태상태청발죄승천보친(太上泰淸拔罪升天寶懺)』에는 명부지옥의 원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그때 광명이 북방의 풍도(酆都) 나산(羅山)에 있는 여러 지옥을 비쳤다. 죄를 짓고 고통 받고 있는 무리들 중에서… 그 가운데 한 죄인은, 살아생전에 도교경전을 본 적이 있어 숙명, 인연, 과보(果報)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 광명을 본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묵념 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생전에 죄악을 많이 지은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태상(太上)이 말하기를 “중생이 죄를 지으면 죽어서 풍도에 가게 된다. 귀신은 죄를 지은 혼령(魂靈)을 고문하는데 그 원한을 감당할 수 없다. 철용성은 화염에 불타고, 차(車)는 불가마를 부숴 버리고, 대포는 바위산을 불타게 한다. …어둡고 길고 긴 밤에, 마치 개미가 돌아다니는 듯하다. 지옥에 오래 머물면서 자신이 고통 받는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참회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점점 더 무거워지므로 고통 받아야 마땅하다.<sup>12)</sup>

망자(亡者)의 영혼이 지옥에 떠돌아다니면서 원한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모두 생전에 자신이 지은 여러 가지 ‘죄업(罪業)’에 의하여 해당하는 ‘과보(果報)’를 받는 것이다.

그 외에도 『태상도군설해원발도묘경(太上道君說解冤拔度妙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 하였다.

12) 같은 책, 第3冊, pp.514-515, “爾時, 光明照見北方酆都羅山諸大地獄, 一切群生受諸罪苦… 于其衆中, 有一罪人, 在世之日曾看道典, 稍知宿命、因緣、果報, 睹此光明, 心中默念: 我等受苦, 皆因前世造諸惡業, 招此苦報… 太上曰: 衆生造罪, 死入北酆, 鬼考罪魂, 冤對難抵, 鐵城猛焰, 車裂鑊湯, 炮灸刀山… 冥冥長夜, 似蟻迴圈, 常居地獄, 若不悟其苦因, 預修懺條, 則罪垢日深, 當罹此苦.”

여러 지옥을 다시 돌아보니 굶주리고 가난한 귀신들이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날마다 수많은 고통을 겪는데, 인간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오체(五體)는 다 썩었다. 배가 고프면 화염을 먹고 목이 마르면 췌물을 마신다. 밝은 도산(刀山)을 밟고 서 있고, 몸은 쇠 지팡이에 의지해 서 있으며, 온몸에 피가 흐르고, 신음소리는 하늘을 찌른다.<sup>13)</sup>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고통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태상도 군설해원발도묘경』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여러 죄를 받는 자들은 살아 있을 때 삼광(三光)을 존중하지 않고, 신선의 이치를 무시하였으며, 온갖 죄를 짓고, 불충불인(不忠不仁)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애롭지도 않고 효도하지도 않았으며, 마음대로 생명을 손상하였고, 중생을 살해하였다. 이렇게 하여 복과 수명을 다 써버리고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sup>14)</sup>

도교경전에는 난산(難産) 등 특별한 고통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언급하였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 원한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원시천존제도혈호진경(元始天尊濟度血湖眞經)』 상권에서는 이렇게 설명 하였다. “하계(下界)의 중생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세상을 살아갈 때 흥포한 왕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혹은 균형에 의해 도륙을 당하거나, 감옥에 투옥되거나… 지은 죄가 클수록 더 깊은 혈호(血湖)에 빠지게 되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자신이 지은 과보(果報)에 의해 형성 되는 것으로, 모두 망상과 탐욕을 추구하고, 정직과 진실을 알지 못하며, 시비에 집착하여 죄업이 쌓였기 때문이다… 원(冤)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서로 보상을 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 재액(災厄)이 생기는 것이다.”<sup>15)</sup>

13) 같은 책, 第6册, p.278, “復見諸地獄之中, 餓鬼窮魂, 以日繼夜, 受種種苦惱, 悉無人形, 五體壞爛, 饑食猛火, 渴飲鎔銅, 足履刀山, 身贊鐵杖, 遍體流血, 悲號徹天.”

14) 같은 책, “受諸罪者, 在世之時, 不敬三光, 欺負神理, 十惡五逆, 不忠不仁, 不慈不孝, 毀傷物命, 殺害衆生, 福盡壽終, 當受斯苦.”



인간이 끊임없이 과오를 범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무도(無道)’하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도를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기에 지옥에서 윤회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것이다.

태상도군(太上道君)이 북방세계의 비천신인(飛天神人)에게 물기를 “나는 자주 제천(諸天)을 관찰한다. 북문을 나가 순방하면서 보니 북방 무극세계 지옥의 삼하구강(三河九江)에는 책벌을 받는 남성과 여성들이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무거운 돌을 운반하고 있으며, 몸의 모든 구멍이 막혀 있고, 불타는 목탄을 삼키며, 몸은 이미 형체를 잃었다.…”

북방세계 비천신인이 대답하기를 “이들은 살아생전에 무도(無道)하여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오기천군(五炁天君) 북방의 여러 영관(靈觀), 삼계주사(三界主司)들은 이들의 죄를 상세히 기록하여 현도여청태양궁(玄都女靑太陽宮)의 율법에 따라 처리한 것입니다. 만겁의 생륙축(生六畜) 속에서 오도(五道) 오만겁의 현천을 윤회해야만, 북악도역사(北嶽都役使)의 죄를 갚을 수 있습니다. 죄에 의한 업보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사소한 것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sup>16)</sup>

알다시피 도교의 인간에 대한 인식은 자신만의 독특한 신학체계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도교사상에 의하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척도는 현생의 세속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도(道), 천지, 귀신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당나라 도사 오균(吳筠)은 『현강론(玄綱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지, 인물(人物), 영선(靈先), 귀신은 도가 없이는 생(生) 할 수 없고, 덕이 없이는 이루지 못한다.<sup>17)</sup>

15) 같은 책, 第2册, p.37, “凡有下界衆生, 男子女人, 在世之時, 或遭王法橫惡所加, 兵刑物戮, 牢獄枷鎖… 罪業愈重, 覆墮血湖, 永無出期, 以爲果報, 皆由衆生妄想貪著, 不識正真, 執是非, 積諸罪業… 冤家債主, 互相償報, 是故生產有諸厄難.”

16) 같은 책, 第6册, p.889, “太上道君顧問北方世界飛天神人曰: 我嘗稽觀諸天, 出遊北門, 見北方無極世界地獄之中, 三河九江諸山, 責役百姓子男女人, 塗炭流洩, 負山磨石, 閉塞長源, 吞火瞰炭, 無復身形… 北方世界飛天神人曰: 斯人生世醜逆無道, 五炁天君北方諸靈官, 三界主司結其罪錄, 依玄都女靑太陽宮火官律, 萬劫當生六畜之中, 輪轉五道五萬劫玄天數周, 乃得補北嶽都役使, 其業悠悠, 難可卒還.”

오군에 의하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세상은 도덕으로 이루어진 세상으로, 그 속에는 천지, 인물, 영선, 귀신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인간은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광정(杜光庭)은 『도덕진경광성의(道德眞經廣聖義)』 권1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덕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는 도덕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근원이라는 뜻이다. 몸과 나라를 다스리는 오묘한 이치는 모두 도덕에 있다. 옛날 갈현선공(葛玄仙公)이 오왕(吳王) 손권(孫權)에게 말하기를 ‘『도덕경』이란 천지의 지극한 오묘함을 말한 것으로, 거기에는 천도(天道)도 있고, 인도(人道)도 있고, 신도(神道)도 있다’고 하였다.”<sup>18)</sup>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도교에서는 천도, 인도, 신도, 귀도(鬼道)가 ‘무도(無道)’하거나 ‘실도(失道)’했을 때 여러 가지 원결이나 재난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남송(南宋)의 하원정(夏元鼎)은 『황제음부경강의(黃帝陰符經講義)』 권3에서 ‘천지지사, 용지지공(天之至私, 用之至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무릇 도가 있는 자는 음양의 상승, 하강이 제때에 이루어지고, 일월의 교합(交合)도 시간을 어기지 않는다. 뇌우(雷雨)를 부를 수 있고, 바람과 번개를 다스릴 수 있으며, 건곤을 돌릴 수 있다. 용과 호랑이를 굴복 시키고, 성스러운 공로를 쌓고, 신명들이 나타나니 불가사의한 오묘함이라 한다. 반대로 무도한 자는 음양의 상승, 하강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일월교합이 시간을 어긴다. 뇌우나 풍전(風電)은 있는지도 모른다. 몸 하나를 기르려 음식과 술을 탐닉하고, 그리하여 쓸모없는 약과 음란한 방중술에 의지하게 된다. … 내가 보기에 도가 있는 자는 오래도록 삶을 영위하며 그 수를 다하면 비선(飛仙)이 된다. 도가 없는 자는 질병으로 고통 받다가 초목과 같이 부패하고 만다.<sup>19)</sup>

17) 같은 책, 第23册, p.674, “天地、人物、靈先、鬼神、非道無以生, 非德無以成”

18) 같은 책, 第14册, p.314, “道德二字者, 宣道德生畜之源, 經國理身之妙, 莫不盡此. 昔葛玄仙公謂吳王孫權曰: 『道德經』者, 乃天地之至妙, 有天道焉, 有人道焉, 有神道焉.”

19) 같은 책, 第2册, p.727, “然而有道者, 陰陽升降, 不失其時, 日月交合不差其候, 呼雷喚雨, 振風閃電, 真能旋乾轉坤, 馴龍伏虎, 聖功生焉, 神明出焉, 有不可思議之妙; 無道者反是, 陰陽失升降之期, 日月無交合之候, 雷電風雨自視何有? 一身所存, 不爲飯囊酒甕, 則爲藥肆淫房… 吾見其有道者, 長生住世, 雖數盡而飛仙; 無道者, 疾病纏綿, 速與草木俱腐.”

이상 종합해 보면 초기 도교경전인 『태평경』은 주로 ‘불화불통(不和不通)’, ‘승부론(承負論)’, ‘군책론(君責論)’의 각도에서 ‘원결’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해석하였고, 후세의 도교경전에서는 ‘숙죄론(宿罪論)’, ‘업보론’에 입각하여 해석하였다. 분명한 것은 당시의 도교사상에서는 인생의 고난이나 지옥의 고난을 해석할 때 불교의 ‘인과’, ‘지옥’, ‘윤회’ 등 사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도교에서는 지은 ‘업’에 의해 ‘보(報)’가 돌아오기에,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태평경』에서 말한 ‘승부론’처럼 선인(先人)이 지은 죄를 승부한다는 이론과는 다른 것이다.

## II. 원결의 유형과 해원의 방법

원결의 유형에 대해 『영보령교제도금서(靈寶領教濟度金書)』 권267 「해십원결부(解十冤結符)」에서는 10가지 원결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것은 살상의 원, 목 졸라 죽은 원, 물에 빠져 죽은 원, 악물에 의해 죽은 원, 출산 중 죽은 원, 다른 일에 연루된 원, 총송(塚訟)의 원, 옥중에서 죽은 원, 요사(妖邪)의 원, 삼세(三世)의 원<sup>20)</sup> 등이 있다. 이 10가지 원결은 모두 구체적인 사인(死因)을 언급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원하는 방식도 다양한 종류의 부적을 쓰는 것을 통하여 해결한다.

이 외에 『태상자비도장소재구유천(太上慈悲道場消災九幽懺)』 권9 「해중생결박품제삼(解衆生結縛品第三)」에서는 인생의 수많은 매듭(結)에 대해 언급하였다.

모든 중생은 지수화풍(地水火風)과 음양현회(陰陽顯晦)에 의해 몸이 만들어 지고, 오장육근(五臟六根)이 서로 영향을 주기

20) 같은 책, 第8冊, pp.326-327.

에, 마음과 뜻을 제어하기 어렵다: 의혹에 의한 매듭(結), 반근(盤根)에 의한 매듭, 막힘에 의한 매듭, 상해(傷殘)에 의한 매듭, 질병에 의한 매듭, 구설(口舌)에 의한 매듭, 원수에 의한 매듭, 중병에 의한 매듭, 목이 메임(瘖啞)에 의한 매듭, 유희(遊戱)에 의한 매듭, 교역(交易)에 의한 매듭, 주식(酒食)에 의한 매듭, 살해에 의한 매듭, 뜨거운 불에 의한 매듭… 애욕(愛慾)에 의한 매듭, 귀가 들리지 않는 매듭, 눈이 보이지 않는 매듭… 신희(新喜)에 의한 매듭, 상극에 의한 매듭, 상호간 방해에 의한 매듭이 있다. 무릇 중생은 천지에서 살면서, 형체는 생로병사를 겪어야 하고, 삶의 고난을 겪어야 하며, 무상한 세월의 시련을 겪어야 한다. 여러 가지 매듭은 몸과 마음의 번뇌를 가져오는데 매듭마다 서로 원인이 되어 영원히 휴식할 수 없다.<sup>21)</sup>

인생의 다양한 결박(結縛)에 대해 『태상자비도장소재구유천』에서 주장하기를 “만약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어 매듭을 풀려고 한다면, 청정하고 엄격함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하고, 근검절약을 실시해야 한다. 등을 켜고 향을 피우고, 나의 형상 앞에서 호칭을 부르고 지은 죄를 참회해야 한다…”<sup>22)</sup> 참회는 도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과의형식으로, 그 주요작용은 참회자로 하여금 도장(道場)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참회하게 함으로써 심신의 해탈을 얻고, 결박을 풀어 과보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태평경』은 해원의 방법에 있어 정치신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정치적 지도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태평경』에서 ‘천’은 수의자(授意者)이며 또한 재정자(裁定者)이다. 그는 ‘천사(天師)’를 통해 세상에 ‘문서(文書)’를 전달하고, ‘진도(眞道)’를 표명한다. 선함을 포상하고 악함을 징벌하여 세상의 원한을 해결하는 것이다.

21) 같은 책, 第10册, pp.79-80, “且衆生身假地水火風、陰陽顯晦、皆從五臟六根相染、心王意馬種造、疑惑之結、盤根之結、滯礙之結、傷殘之結、病患之結、口舌之結、冤家之結、篤疾之結、瘖啞之結、戲玩之結、滯礙之結、傷殘之結、病患之結、口舌之結、…愛慾之結、耳不聞聲之結、眼不視物之結…洞房之結、相克之結、相妨之結、如是一切衆生、身居天地、形受榮枯、火宅煎仍、浮生擾擾、有諸煩惱、結結相因、永無休息。”

22) 같은 책, p.80, “衆生欲求悟解、于清靜處嚴潔家庭、隨力豐儉、然(應爲燃、筆者注)香點燈、于我像前、禮諸化號、懺悔冤結…”

하늘(天)은 문서를 내리니, 그 호령은 수만리에 펼쳐진다. 그 말씀을 받아 선한 사람을 포상하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 원결을 풀어준다.<sup>23)</sup>

제왕은 황천(皇天)의 인간세상의 대표<sup>24)</sup>로, 그의 다스림이 도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인간세상의 흥망과 관련된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경』에서는 “도를 흥하게 하는 자는 생명을 주관하는데, 그리하여 만물이 생명을 얻고, 덕을 흥하게 하는 자는 양(養)을 주관하는데, 그리하여 만물과 사람은 모두 잘 길러지기에 원결이 없다.”<sup>25)</sup>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이유로 『태평경』에서 만들어낸 이상적인 제왕군주의 형상은 ‘천심(天心)’을 깊이 얻은 사람으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진정한 도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상군(上君)은 도(道)로 백성을 다스리니, 그렇게 해야 천심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스림은 마치 신(神)과 같으며, 사람을 걱정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도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중군(中君)은 덕으로 다스리고, 하군(下君)은 인(仁)으로 다스리며, 난군(亂君)은 문(文)으로 다스리고, 흉폐(凶敗)한 군주는 형벌로 다스리는 사람이다.<sup>26)</sup>

이상 알 수 있듯이 『태평경』의 해원방법은 결과적으로 세속의 통치자들에 의한 정치적 측면에 의해 해결된다. ‘황천’은 그 대리인인 ‘천사(天師)’를 통하여 문서도책(文書圖冊)의 형식으로 진정한 도를 세상에 하달한다. 이렇게 하여 제왕군주를 감독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왕도(王道)를 실천하게 하여 태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황천’은 인간계의 사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

23) 『태평경합교』, pp.467-468, “天出文書, 令使可遙行萬萬裡, 得通其言, 以暢善人, 以知惡人, 以解冤結.”

24) 같은 책, p.219, “夫帝王者, 天之子, 人之長.”

25) 같은 책, p.219, “道興者主生, 萬物悉生, 德興者主養, 萬物人民悉養, 無冤結.”

26) 같은 책, p.32, “故古者上君以道服人, 大得天心, 其治若神, 而不愁者, 以真道服人也; 中君以德服人; 下君以仁服人; 亂君以文服人; 凶敗之君以刑殺傷服人.”

는다는 것이다. 만약 군주가 왕도의 정치를 잘하지 못하면, 황천은 화를 내어 세상에 여러 가지 재난을 내려 보내는데, 하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무도(無道)한 정치를 징벌한다. 만약 군주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민간에서는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한다(替天行道)’는 명분으로 민란이 일어나게 되며, 그렇게 하여 무도한 군주를 쫓아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태평경』은 그 자체만으로 혁명적인 요소<sup>27)</sup>를 갖고 있으며, 매우 강력한 ‘구세(救世)’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약 『태평경』의 해원방식이 정치 신학적 각도에 치중하여 난세를 해결하고 태평성세를 건설하고자 했다면, 위진(魏晉)이후의 ‘신선도교’는 재초과의(齋醮科儀)라는 비교적 완화된 종교 신학적 방법에 의해 해원하려 하였다. 이렇게 하여 도교는 ‘구세’의 정신으로 ‘제세’를 도모하는 사회변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인간세상의 모순을 해결하려 하였으며, 개인의 행위가 자신이 받는 고통의 결정적인 원인임을 강조하였다.

위진남북조 이후의 도교경전을 보면, 당시 해원석결(解冤釋結)의 방법은 주로 재법(齋法)에 속해 있다. 이는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고 재법의 식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여러 재법 중 가장 유행했던 것은 영보파(靈寶派)의 재법이었는데, 북주(北周)의 도교경전인 『무상비요(無上秘要)』 권47 「재계품(齋戒品)」에서는 “재법은 비록 많으나, 그 방법은 대동소이하다. 가장 공덕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재법은 오직 태상영보재(太上靈寶齋)이다.”<sup>28)</sup>라 하였다. 송나라 시기 육수정(陸修靜)은 도교교단을 정돈하고 재의(齋儀)를 편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바로 ‘구제십이법(九齋十二法)’이다. 『통현영보오감문(洞玄靈寶五感文)』에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통현영보재법에는 아홉 가지가 있다. 그것은 유위(有爲)를 목

27) 차선근, 앞의 글, p.404.

28) 『道藏』, 第25册, p.166.

표로 한다. 제일법(第一法)은 금록재(金錄齋)로 음양을 조화하고 국왕을 구제한다. 제이법(第二法)은 황록재(黃錄齋)로 법적인 효력으로 구조(九祖)에 달하는 죄를 구해준다. 제삼법(第三法)은 명진재(明眞齋)로 학사(學士)는 스스로 만조(萬祖)의 유혼(幽魂)을 구해준다. 제사법(第四法)은 삼원재(三元齋)로 학사는 일 년에 세 번 실행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한다. ... 29)

여기서 황록재와 명진재법은 모두 망혼(亡魂)의 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도교 해원결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재법이다. 두 가지 재법 중 황록재가 더 많이 사용된다. 당나라 말기 오대(五代)의 도사 두광정(杜光庭)은 『도교영험기(道教靈驗記)』에 황록재가 사용된 수많은 사례를 기술하였는데, 예를 들어 권15 「리약황록재험(李約黃錄齋驗)」에는 다음과 같이 황록재법을 찬송하였다.

황록재는 존망(存亡)을 구제하고, 원결을 해소하며, 죄범을 사면하고, 신명을 불러오는 등 못하는 것이 없다.<sup>30)</sup>

두광정은 또 『도문과범대전집(道門科範大全集)』에 수많은 도교 과의에 대해 수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비록 전문적으로 해원과의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많은 해원석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문과범대전집(道門科範大全集)』 권4 「천양질병의(懺禳疾病儀)의 ‘청단행도(淸旦行道)’에는 “중생들을 위하여 사적(死籍)을 말소하고 생명(生名)을 기록해 주시고, 재액을 해소하고 원한을 풀어 주시며, 티끌 같은 죄도 용서하고 모든 과오를 평정해 주시기를 여러 진인께 바라나이다.”라고 나와 있다.<sup>31)</sup>

송나라 시기 유행했던 연도(煉度), 제련(祭煉), 시식(施食) 등 과의

29) 같은 책, 第32册, p.620, “二曰洞玄靈寶之齋, 有九法以有爲爲宗. 其一法, 金錄齋, 調和陰陽, 救度國王. 其二法, 黃錄齋, 爲同法拔九祖罪根. 其三法, 明眞齋, 學士自拔億曾萬祖九幽之魂. 其四法, 三元齋, 學士一年三過, 自謝涉學犯成之罪...”

30) 같은 책, 第10册, p.855, “黃錄齋者, 濟拔存亡, 消解冤結, 懺謝罪犯, 召命神明, 無所不可.”

31) 같은 책, 第31册, p.767, “爲弟子某剷除死籍, 汪(應爲‘注’, 筆者注)上生名, 解回祛災, 和冤釋對, 宿眠靑蕩, 積過銷平.”

를 보면, 그 속에는 많은 해원석결의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태극제련내법(太極祭煉內法)』에서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혹자 묻건대, “해원석결의 요지는 무엇인가?” 대답하여 아뢰입니다. “흥심(興心)이 발하는 것을 죄업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원한이 생기게 됩니다. 민심(泯心)이 사물을 잊으면 그것은 도의 근본이 됩니다. … 내가 집착하면 상대도 집착하고, 내가 잊으면 상대도 잊습니다. 양쪽 모두 사물에 집착하지 않으면 자연은 무위의 천(天)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원한은 풀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풀립니다.”<sup>32)</sup>

제련의 방법은 법사(法師)자신의 심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태극제련내법』 하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제련을 할 때는 조용한 방에 깨끗한 탁자를 놓고 밥 한 그릇과 물 한 그릇을 떠 놓는다. 깨끗한 물로 목욕재계 한 다음 단양(丹陽)의 부적을 태워 그릇에 담긴 물속에 넣는다. 그리고 나서 향을 피우는데 향로(香爐)를 불로 하고 물그릇은 물로 하여 보록(寶籙)을 태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 촛불도 켜지 않고 조용히 법좌를 하고 일정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은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다. 한 마음을 모아 유명(幽冥)을 제련하니 귀신들을 구제하고 나의 마음 역시 활연(豁然)하게 맑아진다. 보귀한 경전을 모시고 정진하니 마음은 전일(專一)하고 정심(情心)은 쉽게 감응한다. 정중(定中)의 경지에 이르니 천상의 신명 및 지하의 유희와 혼연일체를 이루어 통철(通徹)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sup>33)</sup>

도교경전에는 또 독립적인 해원석결의 경전이 있는데, 예를 들어

32) 같은 책, 第10册, p.461, “或問 解冤釋結之旨? 曰: 興心發念是爲惡業, 則有冤讎之報對, 泯心忘物, 則爲道本… 我執彼亦執, 我忘彼亦忘, 兩邊不著于物, 自然還于無爲之天, 冤結不待解釋而自解釋.”

33) 같은 책, p.462, “祭煉時, 辟一靜室, 置一淨幾, 小小盂飯, 一小盂水, 又一盂水作沐浴池, 焚丹陽符投之于水, 並一炷香外像, 以香爐爲火, 以水盂爲水, 及先焚寶籙, 外更無他物, 不要燈燭, 方靜打坐一更許, 乃行持作用, 純是以我一團精神, 祭煉幽冥, 豈獨鬼神得濟, 我之精神亦豁然清爽, 大率法貴簡徑則易行, 情心貴專一則易感應, 定中境界, 與天上神明, 地下幽冥, 混而爲一, 無不通徹.”



『태상도군설해원발도묘경(太上道君說解冤拔度妙經)』(일명 『태상설통진고황해원경(太上說通眞高皇解冤經)』이라고도 함, 같은 책이나 제목이 다르다), 『태상삼생해원묘경(太上三生解冤妙經)』, 『원시천존설동악화신제생도사발죄해원보명현범고주묘경(元始天尊說東嶽化身濟生度死拔罪解冤保命玄範誥呪妙經)』 등이 그것이다. 이런 경전들은 주로 재계(齋戒)와 독경(讀經)의 방법으로 해원석결할 것을 강조했다.

만약 선남선녀가 있다면, 일심을 가다듬고 고요하게 재계를 해야 한다. 향을 피우고 도를 행하는데, 육시(六時)에 전념(專念)하여 경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나는 소원을 비는 자를 보호하여 그로 하여금 오래 묵은 원한을 풀고 복을 받을 수 있게 좋은 곳으로 보낼 것이다. 그 유힘은 고통에서 벗어나 승화(昇華)를 이룰 것이다.<sup>34)</sup>

재법을 통한 해원 외에도 도교경전에는 송경(誦經), 화부(畫符), 지주(持呪), 곁결(掐訣) 등 종합적인 해원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태상태현녀청삼원품계발죄묘경(太上太玄女青三元品誡拔罪妙經)』에 “본 경전의 공덕은, 유힘을 구제하고 여러 가지 악을 해소하는 것이다. … 고통을 해소하고, 원한을 해결하며, 화(禍)를 면하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복을 내려주고, 세상을 이롭게 하니, 실로 무궁무진하다.”<sup>35)</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태상삼생해원묘경』에서는 독경을 통한 해원방법<sup>36)</sup>도 소개 하였지만 이 문장에서는 생략하겠다. 도교경전에는 또 화부, 지주를 통한 해원방법도 많이 수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태상삼통신주(太上三洞神呪)』, 『청미신렬법(淸微神烈法)』, 『태상삼생해원묘법』에는 해원에 관련된 많은 주(呪), 부(符), 결(訣)이 수록되어 있다.

34) 같은 책, 第6冊, p.278, “若有善男子善女人, 一心專志, 入靜持齋, 焚香行道, 六時轉念是經, 吾當隨願保佑其人, 使宿世冤讎, 乘福超度, 幽魂苦爽, 各獲超升.”

35) 같은 책, 第1冊, p.842, “此經功德, 能濟幽沈, 能解衆惡, …能除衆苦, 能解冤讎, 能滅非禍, 能資福壽, 利益世界, 不可窮盡.”

36) 같은 책, 第6冊, p.314, “天尊曰: 吾今說此『三生解冤妙經』, 若有善男子善女人, 每日燒香誦經三遍, 己身冤結, 盡皆消滅.”

한 마디로 도교의 해원방법을 보면 재초과의(齋醮科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사의 재초를 통하여 신령을 불러 인간계에 내려오게 하여 천, 지, 인 삼계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적, 주문, 결 등을 병용하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은 인간, 귀, 신이 서로 통하게 하여 해원석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 Ⅲ. 해원의 주체와 범위

도교에서 실시하는 해원의 주체는 주로 황천(皇天), 원시천존, 구고천존(救苦天尊), 태상도군(太上道君), 태상노군, 도사, 상인(常人)이다. 알다시피 『태평경』의 최고 인격신은 ‘황천’이다. 그가 해원하는 방법은 천사(天師)를 중간 매체로 하여 여섯 명의 진인(真人)과 문답하는 방식으로 하늘의 뜻을 전달하고, 인간 세상에 교훈을 내려 보내 군왕이 덕치를 실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신하와 백성이 군왕의 뜻에 맞도록 진도(眞道)를 지키게 되므로, 세상은 원한이 없이 태평한 세상을 유지한다. 이 과정에서 ‘황천’은 천, 지, 인의 원한해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즉, 『태평경』은 대리인을 통하여 쌓여있던 원한을 해소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사상은 후세의 도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도교의 재초과의 법사(法事)는 주로 도사가 진행하는데, 과정 전체를 보면 그 속에는 신을 모셔오고, 모셔가는 절차가 있다. 도사는 과의를 진행하는 주체로, 변신을 통하여 신과의 합일을 이루고, 신인교류의 매개체가 되며, 이렇게 하여 신도들의 해원에 대한 바람을 이루어 주는 것이다.

물론 도교경전에는 수많은 존신(尊神)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해원석결을 행해주는 내용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태상삼생해원묘경(太上三生解冤妙經)』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때, (민중의)소리를 듣고 구고천존(救苦天尊)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십방(十方)세계를 순시하였다. 이들은 중생을 화도(化度)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그들을 이끌어正道(正道)에 이르고 사악한 종파에 빠지지 않게 하였다. 서방에 한 국왕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정범(淨梵)이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음탕하고 살생을 많이 했으며, 선한 공덕을 쌓지 않아, 대부분 지옥에 빠져 인간의 몸을 잃어 버렸다. 이들을 염려하여 신령들은 즉시 화신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sup>37)</sup>

천존은 또한 그 나라 황후한테 자녀들이 자주 요절하여 후대가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천존이 말했다. “그대는 전생에 임신했을 때 조심하지 않아 태아가 사망한 적이 있다. 그 자녀들이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기에 지금과 같은 업보를 받는 것이다. 만약 믿겨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 혼령을 불러올 수 있으니, 그대가 직접 물어보기 바란다.” 천존이 한 곳을 가리켜 주니 황후는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 야차(夜叉)가 있었는데, 얼굴은 파랗고 눈은 마치 괴성(怪星)과 같았다. 황후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전생에 나는 음주(陰注)를 받아 그대의 몸에 잉태했다. 그 때 그대는 나이가 어려 몸을 전혀 아끼지 않았고 방종하게 살았다. 그렇게 조심하지 않아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지금 그 복수를 하는 것이다.”<sup>38)</sup>

구고천존은 십방세계를 순찰하는 방식으로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해원석결을 실행하였는데, 그 대상으로는 특정된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한 국가나 가정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십방세계의 모든 원한을 포함하기도 한다. 『태상삼생해원묘경』에는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다. “본 경전은 한 사람의 원한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

37) 같은 책, 第6册, p.313. “爾時, 尋聲救苦天尊, 與諸侍從巡遊十方世界, 化度衆生, 出離苦海, 令歸正道, 不入邪宗. 觀見西方于內一國王, 號淨梵, 此國人民多生淫殺, 不造善功, 多沈地獄, 多失人身. 念彼衆生, 遂即化身下降.”

38) 같은 책, “天尊曰: 是汝前生之中, 懷孕不慎, 殺落其胎. 兒女心內憎嫌, 故得今身如此之報. 恐汝不信, 吾今攝此冤魂, 汝當親問. 天尊指處, 皇后視之, 見一夜叉, 面如葉藍, 眼如怪星. 指皇后而言: 前生之時, 我受陰注, 投你爲母. 你身年幼, 全無惜護, 隨性作爲, 因此不慎殺落我身, 今欲還報.”

다. 그대들이 성심(誠心)을 갖고 이 경전을 백번 읽는다면, 한 국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원한을 해탈할 수 있다.”<sup>39)</sup>

구고천존의 화신(化身)에 대하여 『원시천존제도형호경(元始天尊濟度血湖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동방의 장락세계(長樂世界)에 자비하고 인자한 태일(太一)구고천존이 있다. 겁(劫)이 시작되던 초기에 큰 서원(誓願)을 하였으니 그것은 마치 항하사수(恒河沙數; 갠지스강의 모래알)만큼 화신하여 모든 중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다. 하늘에 있을 때는 태일복신(太一福神)으로 불리고, 인간세상에서는 대자인자(大慈仁者)로 불리며, 지옥에서는 일요제군(日耀帝君)으로 불리고, 외도섭사(外道攝邪)에서는 사자명왕(獅子明王) 불리며, 수부(水府)에서는 통연제군(洞淵帝君)으로 불린다. 그대들은 나의 기(炁)이고, 나는 그대의 근(根)이니, 그대들이 아는 것(知)은 나도 안다. 천존은 구양(九陽)의 정(精)으로 아주 영험하다. 혹은 천궁(天宮)에 머물고, 혹은 인간 세상에 강림하고, 혹은 지옥에 머물고, 혹은 사악한 무리를 위협하고, 혹은 선동옥녀(仙童玉女)로 나타나고, 혹은 제군성인(帝君聖人)으로 나타나고, 혹은 천존도사(天尊道士)로 나타나고, 혹은 황인노군(皇人老君)으로 나타나고, 혹은 천의공조(天醫功曹)로 나타난다. 그神通은 무량하고 공덕은 무궁하며, (구원의) 소리를 찾아 고난을 구제해주니,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sup>40)</sup> 구고천존은 신사(信士)를 통하여 그 명호를 부르면, 화신하여 범계에 내려와 천, 지, 인 삼계의 원한을 해소한다. 도교경전에는 이렇게 화신하여 해원하는 방식이 아주 보편화 되어 있다.

도교에서 해원석결의 대상에 대한 범위는 아주 넓은데, 영보파(靈寶派)의 재법(齋法)에서 잠깐 엿볼 수 있다. 영보파 경전 『영보무량도인상품묘경(靈寶無量度人上品妙經)』의 권1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39) 같은 책, 第6册, p.314, “此經非獨解一人之冤結。汝等各發誠心, 誦經百遍, 一國之人, 應有冤結, 悉皆解脫。”

40) 같은 책, 第2册, pp.38-39, “此東方長樂世界, 有大慈仁者太一救苦天尊, 昔在劫初, 發弘誓願, 化身如恒河沙數, 物隨聲應, 在天呼爲太一福神, 在世呼爲大慈仁者, 在地獄呼爲日耀帝君, 在外道攝邪呼爲獅子明王, 在水府呼爲洞淵帝君, 汝是吾之炁, 吾是汝之根, 汝知吾知, 此是九陽之精, 甚靈甚靈, 或居天宮, 或降人間, 或居地獄, 或攝群邪, 或爲仙童玉女, 或爲帝君聖人, 或爲天尊道士, 或爲皇人老君, 或爲天醫功曹, 神通無量, 功行無窮, 尋聲救苦, 應物隨機。”

천지의 운(運)이 끝나니 마땅히 재계하고 향을 피우고 경전을 읽어야 한다. 성수(星宿)의 위치가 맞지 않고, 일월이 빛을 내지 못하니 마땅히 재계하고 향을 피우고 경전을 읽어야 한다. 사시(四時)가 맞지 않고,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 마땅히 재계하고 향을 피우고 경전을 읽어야 한다. 나라에 재난이 닥치고, 도처에 군사가 일어나니 마땅히 재계하고 향을 피우고 경전을 읽어야 한다. 역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니 마땅히 재계하고 향을 피우고 경전을 읽어야 한다. … 재계하고 독경하면 그 공덕이 많아진다. 위로는 천재(天災)를 면하고 군주를 보좌할 수 있고, 아래로는 병독을 물리쳐 역조의 창생을 구한다. 생사를 의지할 수 있고, 더없는 복을 주니, 무량(無量)이라 한다. 천과 인 모두를 도제(度濟)하는 것이다.<sup>41)</sup>

영보과의 이론에 따르면 재법을 하면 천지, 성수, 일월, 사계(四季)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세상의 군주가 재난을 입거나 군사가 일어나 생기는 각종 원한도 모두 화해(化解)할 수 있다고 한다.

원시천존(元始天尊), 영보천존(靈寶天尊), 도덕천존(道德天尊)은 도교의 선천존신(先天尊神)으로, 그들이 해원석결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대법력(大法力)을 통하여 여러 신진(神眞)을 불러온 후 그들로 하여금 혈호지옥(血湖地獄)의 원한을 해소해 주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시천존제도 혈호진경(元始天尊濟度血湖眞經)』에 “천존은 백역의 서광(瑞光)을 비추고, 왼손에는 유리보병(瑠璃寶瓶)을 들고, 오른손에는 공청우지(空靑羽枝)를 들었다. 구두사자(九頭獅子)의 금련취엽(金蓮翠葉) 보좌에 앉아 하늘로 날아오른다. 칙령을 내려 구봉파예대신(九鳳破穢大神), 세완대신(洗滌大神), 무의단은대신(無義斷恩大神), 정정화목대신(正精火目大神), 진뢰고목대신(震雷鼓目大神), 전각복체대신(全角復體大神), 해원석대대신(解冤釋對大神)을 불러와 혈호(血湖)를 깨끗이 청소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을 없앤

41) 같은 책, 第1册, p.6, “夫天地運終, 亦當修齋, 行香誦經, 星宿錯度, 日月失昏, 亦當修齋, 行香誦經, 四時失度, 陰陽不調, 亦當修齋, 行香誦經, 國主有災, 兵戈四興, 亦當修齋, 行香誦經, 疫毒流行, 兆民死傷, 亦當修齋, 行香誦經. … 夫齋戒誦經, 功德甚重, 上消天災, 保鎮帝王, 下禳毒害, 以度兆民, 生死受賴, 其福難勝, 故曰無量, 普度天人.”

다. 원시부명(元始符命) 및 원황곡(元皇曲)을 내려 보내 태사(胎死)한 원혼을 구제하여 하루빨리 승천(升遷)하게끔 한다. 이 때 풍도북제(豐都北帝) 및 여러 귀관(鬼官), 우두옥졸(牛頭獄卒), 위렴신왕(威斂神王), 삼계대마(三界大魔), 구억귀왕(九億鬼王), 혈호대신(血湖大神)은 칙령을 받들어 죄혼(罪魂)을 사면한다.”<sup>42)</sup>라고 나와 있다.

선천존신이 해원하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설법을 통하여 중진(衆眞)을 교화한 후, 중진이 화신하여 도사들을 도와 원한을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량의경(無量意經)』에서는 도덕천존의 교화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였다.

내가 설법(說法)하고자 하니, 그대들은 잘 들길 바란다. … 그 때 천진대신(天真大神) … 여러 천신(天神)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옳다고 하면서 아주 즐거워하였다. 그 말씀은 이러하다. 도(道)를 받들고자 하는 자가 마음속으로 올바른 마음을 갖고 모든 고난을 구제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화신하여 인간계에 내려 올 것이다. 그 때 제천(諸天)의 대장군과 십방(十方)의 대신(大神)은 병마(兵馬)를 이끌고 도우러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 중생 및 무량육도사생(無量六道四生) 등은 모두 생명을 연장 받을 것이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며, 병든 자는 치유될 것이고, 귀요사마(鬼妖邪魔)는 해탈을 받을 것이며, 원한을 가진 상대들은 모두 해소될 것이다.<sup>43)</sup>

선천존신이 해원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인간 세상에 있는 도력(道力)이 높은 도사가 법술을 실행하여 해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태상소제룡신안진분묘경(太上召諸龍神安鎮墳墓經)』에 수록되어 있다.

42) 같은 책, 第2册, p.39, “天尊放百億瑞光, 左手擎瑠璃寶瓶, 右手執空青羽枝, 乘九頭獅子金蓮翠葉之座, 乘空而去, 敕詔九風破穢大神、洗滌大神、無義斷恩大神、正精火目大神、震雷鼓目大神、全形復體大神、解冤釋對大神、清蕩血湖、破除獸穢, 告下元始符命, 元皇曲敕救度產死罪魂, 時刻升遷, 是時豐都北帝及諸鬼官、牛頭獄卒、威斂神王、三界大魔、九億鬼王、血湖大神, 咸遵勅命, 赦拔罪魂。”

43) 같은 책, 第1册, p.604, “我若說法, 與汝等言 … 是時天真大神 … 諸天聖衆聞說是已, 各各歡喜, 作如是言: 若有奉道之士能發如是心, 欲救一切苦, 臣等當化身下降, 令諸天大將及所在十方四直都大神將吏兵助法行持, 俾諸衆生及無量六道四生等衆生者得以延生, 死者得以復生, 病者得以安, 鬼妖邪魔皆得解脫, 冤家執對各獲消散。”

친존이 말했다. “세상사람 중 이번 생에 빈곤한 사람은 전생에 도법(道法)을 믿지 않고 선한 과업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매장을 했을 때 망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가 묻힌 장소 역시 사시(四時)와 천성지수(天星地宿)에 맞지 않아 이렇게 되었다. 오늘 그대의 상소를 듣고 나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이제부터 세인들 중 누구든 묘 자리가 불안하여 여러 재화(災禍)를 입고 있는 자가 있으면, 득도한 도사를 찾아가 영보법을 하거나 도장(道場)을 지으면서 죄를 뉘우치라. 그리고 용왕(龍王)을 불러 묘 자리를 안정케 하라. 이렇게 하면 재앙이 해소되고 상서로운 복을 받을 것이다.”

한 마디로 도교에서 해원을 할 때 그 주체는 법사(法師)를 매개체로 하는데, 도장을 설립하여 여러 신명을 신단(神壇)에 모셔온 후, 그들이 법사를 도와 각종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해원의 범위는 천, 지, 인 삼계의 모든 원한을 포함한다. 도교의 최고신은 일반적으로 직접 육신의 형태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해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해원에 관련된 신령을 화신의 형태로 인간세계에 보내 해원을 실시한다.

#### IV.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사상

대순진리회는 ‘해원상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해원’의 목적은 ‘상생’이고, 더 나아가 상극이 없는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sup>44)</sup> 여기서 말하는 ‘상생’은 상호간의 이익에 근거한 공생이나 윈윈전략이 아니다. 그 이유는 공생은 자신의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생물성(生物性) 개념으로, 기생(寄生)관계도 공생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윈윈전략은 상극을 전제로 하는

44) 『대순진리회요람』, p.4, “해원 보은 양원리인 도리로 만고에 쌓였던 모든 원율이 풀리고 세계가 상극이 없는 도화낙원으로 이루어지리니 이것이 바로 대순하신 진리인 것이다.”

상호이익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sup>45)</sup> 본질적으로 볼 때 ‘상생’은 이타성(利他性)의 윤리적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대순사상에서는 “해원상생·보은상생은 ‘남에게 착을 짓지 말고 남을 잘 되게 하라.’는 진리이다.”<sup>46)</sup> 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념에 근거하여 대순진리회는 ‘해원상생’의 종교적 이념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으니 아래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

## 1. 원결이 형성되는 원인

천지인 삼계에 원한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하여 강증산은 천과 인의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보았다. 인간적인 요소는 또 다시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서양문명이 과도하게 기술과 물질에 의존하게 되면서 인간은 자만에 빠지게 되는데 그 결과 인간이 신도(神道)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뜬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sup>47)</sup>

인간으로 인하여 원한이 생긴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행한 여러 가지 무도(無道)한 행위에 의하여 원한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sup>48)</sup>

45) 차선근, 앞의 글, pp.400-401.

46)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 『대순지침』, 간체본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p.13. 이하의 인용은 모두 본 『대순지침』에 근거한다.

47)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 『전경』, 간체본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교운 1장 9절. 이하의 인용은 모두 본 『전경』에 근거한다.

48) 같은 책, 행록 5장 38절.



인간으로 인하여 원한이 발생한 것 외에도, 강증산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천지인 삼계가 ‘선천(先天)’에서 ‘상극(相克)’의 이치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sup>49)</sup>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sup>50)</sup>

선천에서는 삼계가 상극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데, 그리하여 삼계는 서로 분리되고 세상에 원한이 가득 차게 되었다. 삼계가 분리되었다는 것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하지 못하면 천, 지, 인이 조화롭게 교류할 수 없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증산은 먼저 상생의 도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음양을 순조롭게 하며, 신명을 조화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해야만 천상의 신성, 불, 보살, 인간계의 중생 및 명부의 유혼 모두가 원한을 해탈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

## 2. 원결의 유형, 범위 및 해원의 방법

대순진리회의 해원사상을 분석해 보면, 해원의 유형과 범위는 천상, 지하, 인간의 원한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증산이 ‘삼계공사(三界公事)’를 진행한 원인이기도 하다.

49) 같은 책, 예시 8절.

50) 같은 책, 공사 1장 3절.

먼저 천상의 측면을 보자. 강증산의 이론에 따르면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51)만 보고 있었기에 신성, 불, 보살이 모두 원한을 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역을 구천에 하소연하였다.”(52) 이들은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신과 인간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상제께서 어느 날 중도들에게 “내가 이 공사를 맡고자 함이 아니니라. 천지신명이 모여 상제가 아니면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 하였다.”(53)

지하(地下)의 측면을 놓고 보면, 주로 명부의 원한을 언급했는데, 강증산은 삼계가 착란(錯亂)을 일으킨 것이 명부가 혼란에 빠진 이유라고 하였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54)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치셨도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55)

인간의 측면을 놓고 보면 주로 인간, 국가, 민족, 동물 등의 원한이 포함되어 있다.

상제께서 최 익현과 박 영효(朴泳孝)의 원을 풀어 주신다고 하시면서 ... (56)

---

51) 같은 책, 공사 1장 11절.

52) 같은 책, 교운 1장 9절.

53) 같은 책, 공사 1장 9절.

54) 같은 책, 공사 1장 5절.

55) 같은 책, 예시 10절.

56) 같은 책, 공사 2장 22절.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희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문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 주려 함이노라.<sup>57)</sup>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공부와 옷을 갈아입고 방에서 나오시니 대원사 골짜기에 각색의 새와 각종의 짐승이 갑자기 모여들어 반기면서 무엇을 애원하는 듯 하나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너희 무리들도 후천 해원을 구하려함인가” 하시니 금수들이 알아들은 듯이 머리를 숙이는도다.<sup>58)</sup>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는 데,<sup>59)</sup>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실시한 삼계공사의 핵심은 인간들 사이에 발생한 원한을 해결하는데 있다.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면 인간 세상이 먼저 잘 다스려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증산은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sup>60)</sup>고 하였다.

천, 지, 인 삼계의 원한에 대하여, 강증산이 실행한 해원방법은 먼저 선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쳐, 후천 상생의 원리로 천지도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신, 인, 동물, 망혼의 원한을 해소하고,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sup>61)</sup>

57) 같은 책, 권지 1장 11절.

58) 같은 책, 행록 2장 15절.

59) 같은 책, 교법 1장 54절,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

60) 같은 책, 교법 2장 56절.

61) 같은 책, 공사 1장 3절.

상제님께서 두 번째로 실행한 방법으로는 “도성육신(道成肉身)”의 방식으로 직접 인간 세상에 강세하여 삼계공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런 방식은 중생교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을 일으켜 신도들로 하여금 상제님의 권위를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상제님의 언행에 의한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전에 범한 과오를 반성하게 하는 것이다.<sup>62)</sup> 셋째는 상생과 보은의 방식으로 원한을 풀라고 하면서,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해원방식<sup>63)</sup>을 반대하여, 신인이 화해하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우당 도전께서는 “성·경·신으로 해원상생을 이루어야 한다.”<sup>64)</sup>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강증산이 강조한 해원방식이다.<sup>65)</sup>

강증산이 강조한 해원방식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상생의 이치로 선천의 상극의 이치를 대체하고 우주의 운행법칙을 개변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려면 먼저 도인들의 수행과 더불어 인간 세상에 대한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생들에게 참회, 용서, 관용, 수도의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가정, 이웃, 사회, 민족, 국가가 조화롭게 상생을 이룰 수 있다.

### 3. 해원의 주체

대순사상에서 해원을 실시하는 주체는 주로 진인진신(眞人眞神)인 상제이다. 상제님은 삼계공사를 행하셨는데, 그 목적은 원한을 해소하기

62) 같은 책, 교운 1장 2절, “상제께서 처음으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신이 그 동안 지내오던 허물을 낱알이 회상하여 마음속으로 사하여 주시기를 빌게 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허물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시고 또 반드시 그의 몸을 위하여 적신과 모든 겁액을 풀어 주셨도다.”

63) 같은 책, 교법 1장 34절.

64) 『대순지침』, p.31, “성·경·신으로 해원상생을 이루며 생사판단도 결정되는 것이다.”

65) 『전경』, 교법 2장 14절, “이제 각 선령신들이 해원시대를 맞이하여 그 선자 선손을 적신의 손에서 빼내어 털미를 쳐 내세우나니 힘써 닦을지이다.”

위한데 있다. 예를 들어 『전경』 「공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라.”<sup>66)</sup>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sup>67)</sup>

신도(神道)란 곧 상제님의 도이다. 이것은 선천의 도수를 돌리고, 음양을 조화하는 것으로 상제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상제님은 자신의 언행으로 세인을 교화하였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개개인이 각 성하도록 하는데 있다.

해원은 척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풀므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이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sup>68)</sup>

이러한 이유로 대순진리회에서는 수도인들의 인품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사강령 및 삼요체의 ‘신조’와 ‘훈회’에서 볼 때, 그 주요 목적은 수도자들의 인격을 수양하는 것과 더불어 세상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다. 수도인들은 개인의 수행을 통하여 정진함으로써 상제님의 교시를 받들어 지상선경을 이루고 지상신선을 실현해야 한다. 이렇듯 상제님의 도로써 해원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 대순진리회에서는 ‘포덕(布德)’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66) 같은 책, 공사 3장 4절.

67) 같은 책, 공사 1장 3절.

68) 『대순지침』, p.12.

포덕은 진경을 바탕으로 하여 상제님의 대순하신 광구천하의 진리로 구제창생기 위한 대인접촉이다.

해원상생 대도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 포덕이다.

포덕이란 상제님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廣濟蒼生) 하시려고 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sup>69)</sup>

선천의 상극의 도수를 돌리고, 음양을 조화하고, 광제창생 하고자 ‘도성육신’으로 강세하신 분이 강증산이다. 증산은 종통을 계승한 도주와 도전 및 대순진리회의 신도들에게 신학적, 윤리학적 모범을 세워 주었다. 증산의 신도(神道)를 바탕으로 하여 수도인들은 자신의 수행 및 단결을 통하여 해원상생의 대도(大道)를 실천해야 한다.

## V. 결론

이상으로 도교와 대순진리회의 비교를 통해 원결(冤結)이 생기게 되는 원인, 유형, 범위 및 해원의 방법과 주체를 간단히 소개하고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원결이 발생하는 원인을 놓고 보면 도교와 대순진리회에서는 모두 인간의 과보가 천, 지, 인 삼계에 원한이 쌓이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본다. 하지만 두 사상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대순사상에서는 삼계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선천의 ‘상극’원리로 보고 있다. 상극원리의 지배에 의하여 목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늘(天)’의 성격과 기능을 규정지은 것은 도교의 황천(皇天), 천도(天道)사상과 차이점이 있다. 도교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의 기능은 주로 생육하는데 있다.<sup>70)</sup> 도교만 놓고 보면 『태평

69) 같은 책, p.7.

70) 『道藏』, 第2冊, 『陰符經三皇玉訣』, p.794, “天真皇人曰: 天生萬物, 人爲萬生一物之首也, 故天地相合而長養萬物.”

경』의 ‘군책론(君責論)’이든, 그 이후 위진 시대의 ‘숙죄론(宿罪論)’, ‘업보론(業報論)’이든 모두 ‘인간’의 측면에서 원한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았을 뿐 ‘하늘’의 측면에서는 찾지 않았다. 이런 관점은 정치신학에서 종교신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퇴화시켰다. 이렇게 하여 초기의 민간도교는 혁명적인 성향을 점차 잃게 되었으며, 민중들이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한다(替天行道)’는 도교적인 구호를 빌려 사회 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원결의 유형이나 범위를 놓고 볼 때, 도교에서 행한 해원의 범위를 크게 보면 천, 지, 인 삼계의 원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십방세계, 다시 말해서 우주의 모든 원한이 포함된다.<sup>71)</sup> 해원의 범위를 미시적으로 보면 상해를 입고 죽은 원한이나 혹은 여러 가지 구속을 당한 원한을 말한다. 해원의 대상은 주로는 명부(冥府)에 있는 원혼들, 즉 지옥의 중생들이 해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상제님이 행하신 공사는 천지인 삼계를 상대로 진행한 것으로 이 역시 우주의 모든 원한을 포함하고 있다. 미시적으로 보면 주로 인간들 사이에 발생한 원한을 풀어주는데 있지만 거기에는 인간관계, 명부, 동물, 국가, 민족 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해원의 목적은 지상선경을 건설하는데 있는 것으로, 이것은 현실주의적 목적이 강한 ‘인존사상’에 속한다. 대순사상에 의하면 원시의 신성, 불, 보살 등은 모두 해원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천상계에서 평화롭게 소요하는 신선들과 평화롭고 안정적인 선경을 논하는 도교의 관념과 많은 차이가 있다.

해원의 주체를 보면 도교의 최고신은 주로 화신의 방법으로 인간계에 강림하여 대법력(大法力)을 행하여 해원하거나 혹은 신선을 인간계에 보내는 등 대리인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해원을 실시한다. 이 때 주로 실행하는 해원법으로는 재초과의인데, 과의를 행할 때에는 부(符), 주(呪), 결(訣)이 함께 사용된다. ‘대리인’을 파견하는 것은 도교에서 행하는 해원의식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초기도교사상에 있어서는

71) 같은 책, 第2册, p.792, “天真皇人曰: 宇宙者, 天地也.”

극단적인 수단으로 사회변혁을 꾀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원의식을 행하였다. 대순진리회의 해원의 주체는 상제님으로 그는 진인진신(眞人眞神)의 모습을 하고 있다. 상제님은 인간 세상에 강세하여 천지공사를 행함으로써 우주의 법칙을 돌려놓았다. 즉, 상생의 원리로 상극의 원리를 대체하고, 포덕과 교화를 중시함으로써 인간 세상에 지상천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인들은 수도의 방법에 있어 도덕적 수양에 힘을 쓰고, 가정의 화목, 사회의 화합, 인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순진리회는 이러한 수도의 목적을 갖고 있기에 극단적인 수단으로 사회변혁을 실시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 两种解冤思想的比较

### — 以韩国大巡真理会教典和道教文献为中心的考察 —

朱展炎\*

四川大学道教与宗教文化研究所·讲师

- 一、冤结形成的原因
- 二、冤结的类型和解冤的方法
- 三、解冤的主体与范围

- 四、大巡真理会的“解冤相生”思想
- 五、结语

大巡真理会作为韩国新兴宗教的代表，其教理是“以阴阳合德、神人调化、解冤相生、道通真境为宗旨；以诚、敬、信三法言为修道之要谛；以安心、安身、二律令为修行之训典；崇尚伦理道德、以无自欺为根本，通过改造人、精神开辟、布德天下、救济苍生、辅国安民，建设地上天国。”<sup>1)</sup>从它的教理中，我们可以看出，大巡真理会是一个非常重视建设现世福祉的入世宗教，其宗旨中的合、调、解、通等思想，无不反映了这是一个重视调和神人矛盾、解决人事纷争、注重身心修养的现代宗教。“神人调化”和“解冤相生”作为其宗旨的中间环节，可以说是实现阴阳合德、道通真境的关键所在。大巡真理会将“解冤相生”列入其教理当中，是其非常有特色的地方。

道教在创立之初，就涉及到“解冤”的问题。早期道教经典『太平经』就谈到

---

\* 现四川大学道教与宗教文化研究所，讲师。哲学博士，发表学术论文多篇。E-mail: 123467520@qq.com

1)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纂：『大巡真理会要览』中文版(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7月版)，之“教理概要”，第11页。下引『大巡真理会要览』同此版本。

了许多“解冤结”的思想。<sup>2)</sup>在『正统道藏』和『万历续道藏』中，以“解冤”为主题的道经就有『太上道君說解冤拔度妙經』(『太上说通真高皇解冤经』，二者同书异名)、『太上三生解冤妙经』、『元始天尊说东岳化身济生度死拔罪解冤保命玄范诰咒妙经』等。这些独立成篇的科仪文献，主旨就是为了化解各种人际冤对，求得阳世太平，冤魂超升。

冤，『说文解字』中释曰：“冤，屈也，从门兔。兔在门下不得走，益屈折也(原注：枉曲之意也)。”<sup>3)</sup>冤即冤屈，指被冤枉而不能伸之意。由于蒙冤而不能释怀，就会产生内心的冤恨，形成心结，进而人与人、人与幽魂之间就出现各种仇对，『灵宝玉鉴』卷一云：“有怀胎而死，有既产而亡，或母死而子存，或母存而子死…是皆其前生仇讎，托胎报复…彼安身立命之念既孤，则负屈衔冤之心莫释。”<sup>4)</sup>

所谓冤结，在道教典籍当中，主要是指人由于宿世所犯之罪而导致的各种人际冤对，进而引起阴间冢讼，幽魂遭难，阳世受报，人鬼之间结缚缠绵。而“解冤释结”，就是通过斋醮科仪和符篆咒诀等方式化解阴阳矛盾，求得幽魂超升，阳世太平。宋代王契真『上清灵宝大法』卷四十三称：

凡人处世，多因躁心害物，或欠命负财，积诸冤结，以致阴讼牵连，无由托化。既承天恩开度，得领荐修，但其间怨炁切齿，因邂逅恐生紊乱。当依斋法用符文，随事与之解释，使回心向道，解结和冤，庶可同登乐土矣。<sup>5)</sup>

“解冤释结”一词，在道经当中多有出现，如『灵宝领教济度金书』卷三“解结慕圣位”中所请的解结之神：“灵宝解冤释结灵官…九天解冤释结大神，灵宝如意、万司、解冤、释结四大神。”<sup>6)</sup>除了用“解冤释结”一词

2) 韩国的车瑄根先生在其「<太平经>的解冤结与大巡真理会的解冤相生之比较研究」[金勋主编：『道与东方文化—东亚道文化与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北京：宗教文化出版社，2012年)，第391-418页]一文中详细的讨论。

3) [汉]许慎撰，[清]段玉裁注，『说文解字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8，第2版)，p.472。

4) 『道藏』(北京：文物出版社、上海：上海书店、天津：天津古籍出版社，1988年版)，第10册，第144页。下引『道藏』同此版本。

5) 『道藏』第31册，第93-94页。

外，道经中还常用“解冤结”、“释解冤愆”、“解冤释愆”、“解冤讎”、“解冤拔罪”、“解冤释对”、“解冤除结”、“解冤释缚”、“解结和冤”、“解冤债”、“解冤”、“解冤憎”、“解冤仇”等语词。从这些语词当中，我们可以看出道教对于各种冤结仇对的关注和重视。下面我们分别从冤结成因、种类，解冤的方法、范围、主体等角度进行梳理。

## 一、冤结形成的原因

『太平经』作为早期道教经典，其主旨是探讨如何“致太平”。人世之所以不太平，出现各种灾害、冤结，首先是由元气构成的宇宙出现了不和不通的情况，所以『太平经』非常强调气之相和相通：

悦喜下生，地气顺喜上养；气之行于天下地上，阴阳相得，交而为和，与中和气三合，共养万物，三气相爱相通，无复有害者。<sup>6)</sup>

气的不和不通，究其根本还是由于人祸。因此，『太平经』认为，作为人世中的最高位者——人君——具有重要的决定作用<sup>8)</sup>：

人君，天也，其恩施不下，至物无由生，人不得延年。人君之心不物达，天心不得通于下，妻子不得君父之敕，为逆家也。臣气不得达，地气不得成，…民气不上达，和气何从得兴？中和乃当和帝王治，调万物者，各当得治。今三气不善相通，太平安得成哉？<sup>9)</sup>

从『太平经』的解释模式可以看到，其理论根基即是汉代流行的“元气

6) 『道藏』第7册，第48页。

7) 『太平经合校』（北京：中华书局，1960年第1版），以下简称『太平经合校』，第148页。

8) [韩]车瑄根：「〈太平经〉的解冤结与大巡真理会的解冤相生之比较研究」，第395-398页。

9) 『太平经合校』，第16页。

论”、“天人相副说”和“灾异论”。这一整套的理论模型，强调的是天、地、人之间的三和相通。天人之间能够和谐相通的前提是“天人相副”，由天人同构出发，进而强调“身国同构”。因此，统治者的修身不妄为对天人之间的相通非常重要，君王有治，实行王道，就可以减少“承负”之祸，世间的冤结灾异就可避免。

如果说『太平经』较偏重于从宇宙论模式和人君论的角度来强调世间冤结的形成，注重从政治神学的角度来构建“太平之世”，从而消除人世的各种冤结灾殃。那么，随后的道经更偏向于从宗教神学以个体“宿罪”的角度来看待冤结的形成，『太极真人敷灵宝斋戒威仪诸经要诀』云：“臣等生长魔俗，沉沦季叶，翫乐荣华，宿命因缘，忽见启拔，得奉大道。不以下愚好乐至真升仙之道，而宿罪深积，结缚不解。”<sup>10)</sup>接着，该经对人世结冤、神人结冤的原因进行了详细说明：

… 臣等身及家门大小，愿得赦除前世今生生死重罪恶过。或弑君父，或不孝二亲，或背师欺友，或废真就伪，或为劫贼、攻伐家国，或伐他国，或杀害众生… 杀贤人道士，或为君无道，或为臣不忠，罔上威下，酷虐百姓，已取荣名。或六亲相残，或败靖舍灵坛，或谤经书… 或不崇有道，… 或呵风骂雨，及天地日月星辰、帝王国主、师父道士，轻慢四大。或骂鬼神，呼谓无知。或口是心非，自欺形影。诸如此等，莫大之罪，不可忆识，积世结固，缠绵不解，冤对不已。<sup>11)</sup>

由于个人前世、今世的种种过失，导致各种冤对缠绵不解，人跟人之间、人跟天地之间、人与神之间就结下了各种冤结。

关于地狱之冤苦，道经也多从“宿罪论”的角度来谈论，如『太上秦清拔罪升天宝忏』所述幽冥地狱中的冤苦：

尔时，光明照见北方酆都罗山诸大地狱，一切群生受诸罪苦…

10) 『道藏』第9册，第867页。

11) 『道藏』第9册，第869页。

于其众中，有一罪人，在世之日曾看道典，稍知宿命、因缘、果报，睹此光明，心中默念：我等受苦，皆因前世造诸恶业，招此苦报…

太上曰：众生造罪，死入北酆，鬼考罪魂，冤对难抵。铁城猛焰，车裂镬汤，炮灸刀山，…冥冥长夜，似蚁循环，常居地狱，若不悟其苦因，预修忏涤，则罪垢日深，当罹此苦。<sup>12)</sup>

诸亡魂在地狱之中生死流转，冤对难脱，皆因在世之时自己所犯下的种种“恶业”，因而受此“果报”。

此外，『太上道君说解冤拔度妙经』也论道：

复见诸地狱之中，饿鬼穷魂，以日继夜，受种种苦恼，悉无人形，五体坏烂，饥食猛火，渴饮镕铜，足履刀山，身赞铁杖，遍体流血，悲号彻天。<sup>13)</sup>

造成地狱亡魂所受各种冤苦的原因是什么呢？『太上道君说解冤拔度妙经』借太上道君解释道：

受诸罪者，在世之时，不敬三光，欺负神理，十恶五逆，不忠不仁，不慈不孝，毁伤物命，杀害众生，福尽寿终，当受斯苦。<sup>14)</sup>

在道经当中，还专门谈到了世间出现产难等灾，就是因为人前世所造各种罪业，导致自身与宿世子女之冤对，如『元始天尊济度血湖真经』卷上云：“凡有下界众生，男子女人，在世之时，或遭王法横恶所加，兵刑刎戮，牢狱枷锁，…罪业愈重，复堕血湖，永无出期，以为果报，皆由众生妄想贪着，不识正真，执系是非，积诸罪业…冤家债主，互相偿报，是故生产有诸厄难。”<sup>15)</sup>

人之所以有诸多宿罪、过失，究其根本，是因为人的“无道。”由于人不

12) 『道藏』第3册，第514-515页。

13) 『道藏』第6册，第278页。

14) 『道藏』第6册，第278页。

15) 『道藏』第2册，第37页。

识道、不守道，才会在地狱之中受种种轮回苦报：

太上道君顾问北方世界飞天神人曰：我尝历观诸天，出游北门，见北方无极世界地狱之中，三河九江诸山，责役百姓子男女人，涂炭流曳，负山担石，闭塞长源，吞火瞰炭，无复身形…

北方世界飞天神人曰：斯人生世酷逆无道，五炁天君北方诸灵官、三界主司结其罪录，依玄都女青太阳宫火官律，万劫当生六畜之中，轮转五道五万劫玄天数周，乃得补北岳都役使。其对悠悠，难可卒还。<sup>16)</sup>

我们知道，道教对于人世的认识，是建立在自己独特的神学体系上的，道教认为人生活的维度，不只是此生的世俗生活，还有道、天地、鬼神等层面。唐代道士吴筠在『玄纲论』中说道：

天地、人物、灵先、鬼神，非道无以生，非德无以成。<sup>17)</sup>

吴筠认为，我们的生活世界，是由道德所生成，中间包含了天地、人物、灵先、鬼神等存在者，人的生活世界不只一维。杜光庭在『道德真经广圣义』卷一中也说道：“道德二字者，宣道德生畜之源，经国理身之妙，莫不尽此。昔葛玄仙公谓吴王孙权曰：『道德经』者，乃天地之至妙，有天道焉，有人道焉，有神道焉。”<sup>18)</sup>

因此，道教认为，如果天道、人道、神道、鬼道出现了“无道”、“失道”的情况，各种冤结、灾异就会出现。南宋夏元鼎在『黄帝阴符经讲义』卷三中解释“天之至私，用之至公”时说：

然而有道者，阴阳升降，不失其时，日月交合不差其候，呼雷唤雨，振风闪电，真能旋乾转坤，驱龙伏虎，圣功生焉，神明出焉，有不可思议之妙；无道者反是，阴阳失升降之期，日月无交合之候，雷

---

16) 『道藏』第6册，第889页。

17) 『道藏』第23册，第674页。

18) 『道藏』第14册，第314页。

电风雨自视何有？一身所存，不为饭囊酒瓮，则为药肆淫房……吾见其有道者，长生住世，虽数尽而飞仙；无道者，疾病缠绵，速与草木俱腐。<sup>19)</sup>

综上所述，早期道教经典《太平经》主要偏重于从“不和不通”、“承负论”和“君责论”的角度来解释“冤结”产生的原因，之后的道经则倾向于“宿罪论”和“业报论”的角度来解释。显然，这一时期的道经在解释人世诸苦、地狱诸苦时，对佛教的“因果”、“地狱”、“轮回”等思想多有吸收，更强调了个体的所作所为（“业”）所导致的后果（“报”）当为自身所承担，而不同于《太平经》“承负论”所强调的承负先人之过。

## 二、冤结的类型和解冤的方法

就具体的冤结而言，《灵宝领教济度金书》卷二百六十七“解十冤结符”中谈到了十类冤结，即：杀伤之冤、缢死之冤、溺死之冤、药死之冤、产死之冤、复连之冤、塚讼之冤、狱死之冤、妖邪之冤、三世之冤等。<sup>20)</sup>这十类冤结，都是针对具体的死因而言。因此，其解冤方式，是通过书写不同的符文来化解。

此外，《太上慈悲道场消灾九幽忏》卷九“解众生结缚品第三”里也谈到了人生的各种结缚：

且众生身假地水火风，阴阳显晦，皆从五脏六根相染，心王意马种造：疑惑之结、盘根之结、滞碍之结、伤残之结、病患之结、口舌之结、冤家之结、笃疾之结、瘖哑之结、戏玩之结、交易之结、酒食之结、杀害之结、汤火之结、…爱欲之结、耳不闻声之结、眼不视物之结……洞房之结、相克之结、相妨之结。如是一切众生，身居天

19) 《道藏》第2册，第727页。

20) 《道藏》第8册，第326-327页。

地，形受荣枯，火宅煎仍，浮生扰扰，有诸烦结，障恼肉身，结结相因，永无休息。21)

面对人生的诸种结缚，『太上慈悲道场消灾九幽忏』主张道：“众生欲求悟解，于清静处严洁家庭，随力丰俭，然(应为燃，笔者注)香点灯，于我像前，礼诸化号，忏悔冤结…”22) 忏法作为道教常见的科仪形式，其作用主要是让信士在道场中忏悔己身罪过来获得身心的解脱，除结解缚，免遭果报。

『太平经』对于解冤的方法，主要还是侧重于政治神学的层面，强调主政者所具有的主导作用。“天”在『太平经』当中是授意者和裁定者，它通过“天师”向世间传达“文书”，阐明“真道”，以此扬善惩恶，化解人间之冤：

天出文书，令使可遥行万万里，得通其言，以畅善人，以知恶人，以解冤结。23)

帝王作为皇天在人间的代表，24) 其主政是否合道，事关人间兴废。因此，『太平经』强调“道兴者主生，万物悉生，德兴者主养，万物人民悉养，无冤结。”25) 所以，『太平经』所塑造的理想君王是深得“天心”，行事符合真道的：

故古者上君以道服人，大得天心，其治若神，而不愁者，以真道服人也；中君以德服人；下君以仁服人；乱君以文服人；凶败之君以刑杀伤服人。26)

可以看出，『太平经』的解冤方式最终是要落实到世俗政治层面，“皇天”

---

21) 『道藏』第10册，第79-80页。

22) 『道藏』第10册，第80页。

23) 『太平经合校』，第467-468页。

24) 『太平经合校』，第219页，“夫帝王者，天之子，人之长。”

25) 『太平经合校』，第219页。

26) 『太平经合校』，第32页。



通过代理人“天师”向“天子”传授代表真道的文书图册，以此警诫和要求君主实行王道，实现太平之治。在此，“皇天”并不直接干预人间事务。如果君王不实行道治，皇天就会发怒，降下各种灾异，以此惩罚无道之政。如果君王不加反省，那么，民间就会爆发以“替天行道”姿态出现的种种动乱，以推翻无道之君。从这一点上看，《太平经》本身就含有革命性指向，<sup>27)</sup> 有很强的“救世”意愿。

如果说《太平经》的解冤方式比较侧重于政治神学的角度来主张解决人间乱象，构建太平之世。那么，魏晋以来的“神仙道教”就比较侧重于从斋醮科仪这种比较温和的宗教神学方式进行解冤，淡化了道教直接参与社会变革的“救世”意愿，而从“济世”的角度来解决人世矛盾，强调个体行为对自身所受冤苦所起的决定性作用。

从魏晋南北朝时期的道教经典来看，当时的解冤释结方法多寓于斋法当中，并不是单独进行的，而是斋法仪式功能的一部分。在这些斋法当中，以灵宝派的斋法最为流行，北周道经《无上秘要》卷四十七《斋戒品》称：“斋法甚多，大同小异，其功德重者，唯太上灵宝斋。”<sup>28)</sup> 刘宋时期的陆修静清整道教，编撰斋仪，主要内容就是所谓的“九斋十二法”。《洞玄灵宝五感文》载：

二曰洞玄灵宝之斋，有九法。以有为为宗。其一法，金篆斋，调和阴阳，救度国王。其二法，黄篆斋，为同法拔九祖罪根。其三法，明真斋，学士自拔亿曾万祖九幽之魂。其四法，三元斋，学士一年三过，自谢涉学犯戒之罪…<sup>29)</sup>

其中的黄篆斋法和明真斋法都是拔度亡魂，是道教解冤释结的最常见斋法，尤以黄篆斋为主。唐末五代道士杜光庭在《道教灵验记》中就记载了很多关于黄篆斋法应验的故事，如卷十五“李约黄篆斋验”中对黄篆斋法的赞颂：

27) [韩]车瑄根，《『太平经』的解冤结与大巡真理会的解冤相生之比较研究》，第404页。

28) 《道藏》第25册，第166页。

29) 《道藏》第32册，第620页。

黄箬斋者，济拔存亡，消解冤结，忏悔罪犯，召命神明，无所不可。<sup>30)</sup>

杜光庭在其所编撰的『道门科范大全集』中收录了大量道教科仪范本，虽然没有单独的解冤释结科仪，但里面就包含了非常多解冤释结的内容，如『道门科范大全集』卷四“忏悔疾病仪”之“清旦行道”中，希望众真“为弟子某削除死籍，汪(应为“注”，笔者注)上生名，解厄祛灾，和冤释对，宿瑕清荡，积过销平。”<sup>31)</sup>

宋元时流行的炼度、祭炼、施食等科仪，也包含了众多解冤释结的方法，如『太极祭炼内法』卷下云：

或问：解冤释结之旨？曰：兴心发念是为恶业，则有冤讎之报对。泯心忘物，则为道本…我执彼亦执，我忘彼亦忘，两边不着于物，自然还于无为之天，冤结不待解释而自解释。<sup>32)</sup>

祭炼之法，非常强调法师本身的心性功夫，『太极祭炼内法』卷下云：“祭炼时，辟一静室，置一净几，小小孟饭，一小孟水，又一孟水作沐浴池，焚丹符投之于水，并一炷香外像，以香炉为火，以水孟为水，及先焚宝箬，外更无他物，不要灯烛，方静打坐一更许，乃行持作用，纯是以我一团精神，祭炼幽冥，岂独鬼神得济，我之精神亦豁然清爽。大率法贵简径则易行，情心贵专一则易感应。定中境界，与天上神明，地下幽冥，混而为一，无不透彻。”<sup>33)</sup>

此外，道教当中也有一些独立的解冤释结经典，比如『太上道君說解冤拔度妙經』(『太上说通真高皇解冤经』，二者同书异名)、『太上三生解冤妙经』、『元始天尊说东岳化身济生度死拔罪解冤保命玄范诰咒妙经』等，多强调斋戒诵经以解冤释结：

---

30) 『道藏』第10册，第855页。

31) 『道藏』第31册，第767页。

32) 『道藏』第10册，第461页。

33) 『道藏』第10册，第462页。

若男善女一心志静斋香道术诵经召遣保举伏魔降度幽暗各超<sup>4)</sup>

除了斋法解冤外，道教还推崇诵经、画符、持咒、掐诀等综合方法，如『太上太玄女青三元品诫拔罪妙经』卷中云：“此经功德，能济幽沈，能解众恶，…能除众苦，能解冤讎，能灭非祸，能资福寿，利益世界，不可穷尽。”<sup>35)</sup>此外，『太上三生解冤妙经』也是主张诵经解冤的内容，<sup>36)</sup>此不赘述。画符、持咒等解冤方法在道经当中也有很多，比如『太上三洞神咒』、『清微神烈法』、『太上三生解冤妙经』等诸多道经都有很多解冤的咒、符、诀。

总体而言，道教对于冤结的化解，斋醮科仪是主要的化导方式，通过法师设斋醮祈请道教神灵下凡化解天、地、人三界之冤结，在行法过程中，配以符、咒、诀等方式，实现人、鬼、神沟通，达到解冤释结的目的。

### 三、解冤的主体与范围

道教实施解冤的行为主体，主要有皇天、元始天尊、救苦天尊、太上道君、太上老君、道士、常人等。我们知道，在『太平经』中，最高的人格神是“皇天”，其解冤的方式是通过天师作为中介，以与六位真人问答的方式传达上天旨意，用以教诲世间君王力行道治，臣民配合君主恪守真道，从而实现无冤结之太平之世。“皇天”在此并不直接下凡化解天、地、人三界冤情。

『太平经』这种通过代理人行使解冤职责的模式对后世道教影响甚大，我

34) 『道藏』第6册，第278页。

35) 『道藏』第1册，第842页。

36) 『道藏』第6册，第314页，“天尊曰：吾今说此『三生解冤妙经』，若有善男子善女人，每日烧香诵经三遍，己身冤结，尽皆消灭。”

们知道，道教的斋醮科仪法事，主要是通过道教的神职人员进行，整个仪式就包含了请神、送神的环节。所以，道士作为行法的主体，通过变身，与神合体，充当了神人沟通的中介，从而实现信众的解冤诉求。

当然，在道经当中，道教的尊神也经常化身下凡为世人解冤释结，如『太上三生解冤妙经』载：

尔时，寻声救苦天尊，与诸侍从巡游十方世界，化度众生，出离苦海，令归正道，不入邪宗。观见西方于内一国王，号净梵。此国人民多生淫杀，不造善功，多沈地狱，多失人身。念彼众生，遂即化身下降。<sup>37)</sup>

接着，天尊向该国皇后解释她为何屡遭子女夭折无后之报：

天尊曰：是汝前生之中，怀孕不慎，杀落其胎。儿女心内憎嫌，故得今身如此之报。恐汝不信，吾今摄此冤魂，汝当亲问。天尊指处，皇后果视之，见一夜叉，面如叶蓝，眼如怪星。指皇后而言：前生之时，我受阴注，投你为母。你身年幼，全无惜护，随性作为，因此不慎杀落我身，今欲还报。<sup>38)</sup>

救苦天尊通过巡游十方世界的方式化度众生出离苦海，解冤释结，其对象既有针对特定个人的，也可以解一国、一家，乃至十方世界一切冤结，『太上三生解冤妙经』云：“此经非独解一人之冤结。汝等各发诚心，诵经百遍，一国之人，应有冤结，悉皆解脱。”<sup>39)</sup>

关于救苦天尊的化身，『元始天尊济度血湖经』卷中云：“此东方长乐世界，有大慈仁者太一救苦天尊，昔在劫初，发弘誓愿，化身如恒河沙数，物随声应，在天呼为太一福神，在世呼为大慈仁者，在地狱呼为日耀帝君，在外道摄邪呼为狮子明王，在水府呼为洞渊帝君。汝是吾之炁，吾是汝之

37) 『道藏』第6册，第313页。

38) 『道藏』第6册，第313页。

39) 『道藏』第6册，第314页。

根，汝知吾知。此是九阳之精，甚灵甚灵，或居天宫，或降人间，或居地狱，或摄群邪，或为仙童玉女，或为帝君圣人，或为天尊道士、或为皇人老君，或为天医功曹，神通无量，功行无穷，寻声救苦，应物随机。”<sup>40)</sup>救苦天尊通过信士称念其名号，化身下凡解救天、地、人三界冤苦，这种以化身来解冤的方式，在道经当中非常普遍。

道教解冤释结对象所涵盖的范围，从灵宝派对斋法的推崇上可见一斑，『灵宝无量度人上品妙经』卷一云：

夫天地运终，亦当修斋，行香诵经。星宿错度，日月失昏，亦当修斋，行香诵经。四时失度，阴阳不调，亦当修斋，行香诵经。国主有灾，兵戈四兴，亦当修斋，行香诵经。疫毒流行，兆民死伤，亦当修斋，行香诵经。…夫斋戒诵经，功德甚重。上消天灾，保镇帝王。下禳毒害，以度兆民。生死受赖，其福难胜，故曰无量，普度天人。<sup>41)</sup>

灵宝派认为通过斋法可以化解天地、星宿、日月、四季的各种乱象，同时对于人世国主遭难、兵戈所造成的各种冤死都可以得到化解。

元始天尊、灵宝天尊和道德天尊作为道教的先天尊神，其行使解冤释结的方式，其一是通过展现大法力来敕召各类神真，以涤荡血湖地狱冤苦，如『元始天尊济度血湖真经』卷中云：“天尊放百亿瑞光，左手擎琉璃宝瓶，右手执空青羽枝，乘九头狮子金莲翠叶之座，乘空而去，敕韶九凤破秽大神、洗浣大神、无义断恩大神、正精火目大神、震雷鼓目大神、全角复体大神、解冤释对大神，清荡血湖，破除厌秽，告下元始符命，元皇曲赦救度产死罪魂，时刻升迁。是时酆都北帝及诸鬼官、牛头狱卒、威敛神王、三界大魔、九亿鬼王、血湖大神，咸遵勅命，赦拔罪魂。”<sup>42)</sup>

其二，通过说法为众真开示，委托众真化身临坛助道士化解冤结，如

40) 『道藏』第2册，第38-39页。

41) 『道藏』第1册，第6页。

42) 『道藏』第2册，第39页。

『无量意经』载道德天尊开示云：

我若说法，与汝等言…是时天真大神…诸天圣众闻说是已，各各欢喜，作如是言：若有奉道之士能发如是心，欲救一切苦，臣等当化身下降，令诸天大将及所在十方四直都大神将吏兵助法行持，俾诸众生及无量六道四生等众生者得以延生，死者得以复生，病者得以安，鬼妖邪魔皆得解脱，冤家执对各获消散。<sup>43)</sup>

其三，建议世人延请世间高道作法解冤的，如『太上召诸龙神安镇坟墓经』载：

天尊曰：世人今身贫困之者，是先世不信道法，不种善因。今世葬埋，不得亡人利益年月。营葬之所，亦有四时惊犯天星地宿，致见如斯。今得卿之所奏，吾甚欣然。自今以后，世人若有坟墓不安，灾衰竞至者，可寻高上道士，如灵宝典式，广建道场，忏悔罪愆。呼召龙王，来安坟墓。则灾患冰消，福祥云集。

总而言之，道教实施解冤的主体主要还是以法师作为中介，通过设立道场来祈请众真临坛，助力法师化解各类冤结。其解冤之范围，包含了天、地、人三界一切含冤对象。道教的最高神，一般不亲自以肉身的方式直接亲临人间驻世化冤，而是通过派遣专职的解冤释结之神化身凡间实施解冤。

#### 四、大巡真理会的“解冤相生”思想

大巡真理会将“解冤相生”作为立教的宗旨之一，可知其独特性。“解冤”的目的是为了“相生”，从而实现无相克的地上天国。<sup>44)</sup>这里的“相生”不是

43) 『道藏』第1册，第604页。

44) 『大巡真理会要览』，第4页，“以此解冤报恩二原理，解积万古之所有冤郁，使世界变成

基于互利意义上的共生和双赢，因为共生是基于自利的生物性概念，有可能走向寄生的关系，而双赢则是基于相克前提下的互利性质。<sup>45)</sup>从本质上讲，“相生”是一个利他性的伦理概念，“须知解冤相生、报恩相生是‘勿积怨、诚利人’的真理。”<sup>46)</sup>基于这种理念，大巡真理会系统地阐释了“解冤相生”的立教理念，我们下面逐一分析。

### (一) 冤结形成的原因

关于天地人三界冤结的形成，甌山认为有天、人二方面的因素。就人而言，一方面是因为西洋文明过度倚重技术和物质，导致人心之骄横，藐视神道权威：

…西洋一切文物实乃仿于天国之模型矣。上帝又道：“然其文明者，倚重于物质，助长了人类之骄傲，以致动摇了对天理之信心，为征服自然犯下了种种罪恶，涤荡神道权威，致天道与人事常道皆忤违，三界混乱，道基断绝…”<sup>47)</sup>

另一方面，则是由于人之种种无道行为所致：

忘其父者无道，忘其君者无道，忘其师者无道。世无忠，世无孝，世无烈，是故天下皆病。<sup>48)</sup>

除了人祸是造成冤结的原因之一外，甌山认为，最为根本的还是由于天地人三界在“先天”为“相克”之理支配所致：

---

无相克之道化乐园，此乃圣师大巡之真理。”

45) [韩]车瑄根,『《太平经》的解冤结与大巡真理会的解冤相生之比较研究』,第400-401页。

46)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纂:『大巡指针』中文版(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第13页。下引『大巡指针』同此版本。

47)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纂:『典经』中文版(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教运1-9。下引『典经』同此版本。

48) 『典经』,行录5-38。





就地下而言，主要是指冥府之冤，甌山认为三界错乱源于冥府之乱：

上帝道：“因冥府发生错乱，世间随之混乱不堪。故冥府公事完成，则世间万事皆可得解。”<sup>54)</sup>

上帝为罪错冥府，故改冥府为教，以此深于冥府明者，得永生，上帝得转<sup>55)</sup>

就人间而言，主要包含了人、国家、民族、动物等冤：

上帝称要解除崔益铉与朴泳孝二人之冤 … <sup>56)</sup>

吾降大法国之天启塔 … 来到朝鲜之地。此行首先拯救那些陷于惨祸中的无名、弱小民族，解除其万古所积之宿冤。<sup>57)</sup>

上帝行完大院寺的功夫，便换了衣服走出房门，大院寺山谷中的众鸟兽突然聚其面前，似在欢迎，又似切切哀求。上帝见此状，说道：“尔等众禽兽也需后天解冤乎？”飞禽走兽放佛听懂了上帝之深意，颌首示意。<sup>58)</sup>

人间的争斗亦会引发天上先灵的争斗，<sup>59)</sup>因此，上帝所行三界公事，其重点主要还是在调解人间的纷争，建立地上天国，以人间事务为主，故甌山说：“人尊大于天尊、地尊，今为人尊时代，当勤修心。”<sup>60)</sup>

面对天、地、人三界之冤情，甌山所行之解冤方法，首先要做的就是调整先天相克之关系，以后天相生的原则来调整天地度数，以此化解神、人、动物、亡魂等之冤情，建立后天仙境：

54) 『典经』，公事1-5。

55) 『典经』，预示10。

56) 『典经』，公事2-22。

57) 『典经』，权智1-11。

58) 『典经』，行录2-15。

59) 『典经』，教法1-54，“上帝曰：人间之争斗引发天上先灵之间的。一俟天上之争结束，人间的争斗才有结果。”

60) 『典经』，教法2-56。

吾德理天地数 调神明 以解初沾怨恨 以相生之道建后天仙境 济度世间苍生<sup>61)</sup>

其次，我们知道，甌山是以“道成肉身”的方式直接下降人世行三界公事的，其教化众生的手段，一是通过种种神迹来点化众生，使其坚定对上帝的信仰；二是通过言行的教诲，令其忏悔已过，反思自身过失<sup>62)</sup>；三是主张以相生、感恩之方式看待人际之冤恨，勿以相克的方式冤冤相报，反对“以牙还牙”的解冤方式<sup>63)</sup>，主张人神之和解、宽恕。

最后，朴都典主张以诚敬信的修道要谛来实现解冤<sup>64)</sup>，这也是甌山所强调的解冤方式。<sup>65)</sup>

从甌山所主张的解冤方法上看，最为要紧的，就是以相生之道代替先天的相克之道，改变宇宙的运行法则。在此前提下，则注重道人的现世修和现实福祉，开示道人通过忏悔、宽恕、包容、修道等方式来实现解冤，以实现家庭、邻里、社会、民族和国家的和谐相生。

### (三) 解冤的主体

大巡真理会解冤的实施者，主要是真人真神的上帝，其在三界所行之公事，即是为了化解各种冤恨，如『典经·公事』载：

七月某日，上帝道：以此公事，消解自古以来累积之冤，除去一切因冤而生之不详，实现永远和平。<sup>66)</sup>

61) 『典经』，公事1-3。

62) 『典经』，教法1-2，“上帝对初遇而追随自己的人，通常令其一回忆过去存在的缺失，心中忏悔，以求饶恕。上帝对于尚未意识到的错误也一一指出，并未其消除身上的冤神和劫厄。”

63) 『典经』，教法1-34。

64) 『大巡指针』，第31页，“以诚敬信实现解冤相生，亦判断生死。”

65) 『典经』，教法2-14，“上帝曰：如今诸先灵逢解冤时代，解救选子选孙于冤神，令选子选孙加紧修道，因而汝等须倍加勤修苦练。”

66) 『典经』，公事3-4。

不论大小事应由神道解冤，若能事先稳固度数并加以调化，人事便以神道为范实现自我达成，这便是三界公事也。<sup>67)</sup>

神道即上帝之道，能扭转先天度数和调化阴阳的，自然是上帝本身。上帝以自己的言行垂范来启示和教诲世人，最终目的还是要落实到人事上，落实到每个个体之自觉上：

解冤乃化解积怨之意。须知结怨者和解怨者皆为我，因此，我先解怨，对方所结之怨才自然化解。双方所结之怨得以化解，才能实现相生。<sup>68)</sup>

因而，大巡真理会对修道者的个人品性非常重视，从四纲领、三要谛的“信条”和“训诲”来看，其着重点是立足修道者的人格培养和现世福祉，通过个人之修持努力，遵循上帝之教诲来实现地上的仙境，做地上的神仙，这种遵循上帝之道来实现解冤的行为，用大巡真理会的专有术语来说即是“布德”：

布德，乃救济苍生为目的，以『典经』为基础，广播上帝大巡之匡救天下之真理，广结善缘。

传授解冤相生大道之真谛，即布德。

布德，即广为传播上帝为匡救天下、广济苍生而力行的九年“天地公事”，使人们享受地上乐园之幸福。<sup>69)</sup>

扭转先天相克度数，调化阴阳，为济度苍生而“道成肉身”的甌山，为后继的道主、都典以及大巡真理会的信士们提供了一种神学、伦理学的行为典范，以此为榜样，通过修道者自身的努力和团结，实践甌山的解冤相生之道。

---

67) 『典经』，公事1-3。

68) 『大巡指针』，第12页。

69) 『大巡指针』，第7页。

## 五、结语

以上我们分别从冤结产生的原因、冤结的类型、范围、解冤的方法和解冤的主体分别对道教与大巡真理会的解冤思想作了一个简要的介绍和分析。从冤结产生的原因上看，道教与大巡真理会都认为人祸也是造成天、地、人三界积冤的一个重要因素。所不同的是，大巡真理会认为三界混乱的根本原因是先天为“相克”的关系所支配，旧时之天徒行杀人之公事，这种对“天”性质和功用的定位明显不同于道教对皇天、天道的看法，在道教看来，天之功用主要是生养。<sup>70)</sup>就道教而言，从『太平经』的“君责论”到魏晋以来的“宿罪论”、“业报论”，更为注重的是从“人”而非从“天”的角度来探讨冤结产生的原因，逐步淡化了政治神学的意味而转向宗教神学，以此消解早期民间道教的革命性倾向，避免民间武装力量借助道教打着“替天行道”的旗号进行社会改造运动。

就解冤的类型、范围而言，道教所行之解冤范围，从宏观来看，包含了天、地、人三界所含之一切冤情，乃至十方世界，也可以说是宇宙<sup>71)</sup>内的一切冤恨。从微观而言，包含了十伤而死之冤、各种结缚等，其所行解冤的对象，多以冥府之冤为主，重化解地狱众生之冤苦；大巡真理会之上帝所行公事，亦是针对天地人三界，也是宇宙所包含之一切积怨。从微观而言，主要是集中在人间各种矛盾的化解、疏导，包含了人际、冥府、动物、国家、民族等，侧重于地上仙境之建立，具有极强的现世主义，即其“人尊思想”。其认为原始神圣、佛、菩萨等也是含冤之对象，这点与道教所认为自在逍遥的神仙形象和平静祥和的天上仙境有所不同。

从解冤的主体和方法来看，道教的最高神多是以化身方式下降人间实施解冤，或通过施展大法力，或通过派遣仙真下凡，主要还是通过代理人来实

70) 『阴符经三皇玉诀』，『道藏』第2册，第794页，“天真皇人曰：天生万物，人为万生一物之首也，故天地相合而长养万物。”

71) 『阴符经三皇玉诀』，『道藏』第2册，第792页，“天真皇人曰：宇宙者，天地也。”

现，方法多侧重于斋醮科仪，同时配合符、咒、诀等方式进行化解，“代理人”的方式可以说是道教实施解冤的重要手段，由此可以避免早期道教所容易采取的极端手段来改造社会。大巡真理会之解冤主体，主要强调了上帝是真人真神的形象，上帝直接下凡于人间实施公事，扭转宇宙法则，以相生之道代替相克之道，重布德与教化，致力于人间仙境的建设。因此，其修道方法多是要求道人注重现世品德之修养，以家庭和睦、社会和谐、人类和平为修道之旨归，因而也不可能采取极端的手段来参与社会改造。

## 【參考文獻】

- 大巡宗教文化研究所編, 『典經』, 韓國: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年版。
- 大巡宗教文化研究所編, 『大巡指針』, 韓國: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年版。
- 大巡宗教文化研究所編, 『大巡真理會要覽』, 韓國: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年版。
- 『道藏』, 北京: 文物出版社、上海: 上海書店、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88年版。
-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年第2版。
- 呂鵬志, 『唐前道教儀式史綱』, 北京: 中華書局, 2008年版。
- 王明編, 『太平經合校』, 北京: 中華書局, 1960年第1版。
- 張澤洪, 『道教齋醮科儀研究』, 成都: 巴蜀書社, 1999年版。
- 張澤洪, 『道教禮儀學』,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12年版。
- 車瑄根, 『『太平經』의 解冤結과 大巡真理會의 解冤相生之比較研究』, 金勛主編: 『道與東方文化-東亞道文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12年版。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Two Haewon Theories

Zhan-Yan Zhu

Institute of Religious Studies of Sichuan University

Haewonsangsaeng(解冤相生;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and mutual beneficence) along with sininjohwa(神人調化; harmonious union of divine beings and human beings) belongs to the mid-stage of the Four Tenets. Thus, it is a core factor to achieve creative conjunction of the virtues of yin and yang and realization of the Dao in the world. It is very significant that Daesoonjinrihoe includes haewonsangsaeng in its dogma. Daoism has focused on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with haewonseokgyeol(解怨釋結) from the beginning of its foundation. Haewon(解冤;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is the important matter which Chinese Daoism has paid attention to. This study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Haewon thoughts of Daesoonjinrihoe and Daoism in order to help promote communication of Korean and Chinese culture.

**Key words** : Daesoonjinrihoe, Daoism, Haewonsangsaeng, Haewonseokgyeol, Haewon

◎ 투 고 일 : 2014년 5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4년 12월 19일~28일

◎ 계 재 확 정 일 : 2015년 5월 21일